metro
메트로 2014년 5월 14일 수요일

인피니트 이시이 무대 컴백쇼

오늘도 무더위 서울시내 낮 기온이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아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은 14일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강릉의 낮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는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형차 시장 수입차 '고속질주'

수요 늘어나지만 외국산 비중 갈수록 높아져
국산은 제네시스 빼고 전차종서 판매 감소세

국내 대형차시장에서 수입차의 공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차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대수와 판매규모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현대차는 에쿠스와 제네시스 2종류의 대형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에쿠스는 올해 1~4월 3625대가 팔려 전년 동기 대비 27.4% 포인트가 감소했다. 반면 제네시스는 1만4045대가 팔려 전년 동기 대비 214.9% 포인트 증가해 현대차의 체면을 살렸다.

메르세데스 벤츠 뉴 S클래스

기아차는 K9의 부진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같은 기간 K9은 1909대가 팔려 전년 동기 대비 6.9% 포인트 줄었다.

쌍용차도 판매부진이 심각하다. 체어맨 W가 전년 누계 대비 5.2% 포인트, 체어맨 H가 19.0% 포인트 감소하면서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수입차업체는 승승장구한다. 1억2990만원부터 시작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뉴 S클래스는 올해 1560대나 팔렸으며, BMW 7시리즈도 711대 팔렸다. 아우디 A8도 521대가 팔리며 선전했고, 포르쉐 파나메라는 180대, 재규어 XJ는 114대, 렉서스 LS는 112대 판매됐다. 이들 고급차의 판매대수를 모두 합치면 현대 에쿠스의 판매대수와 거의 맞먹는 규모다. 게다가 수입 고급차는 평균 판매가격이 비싸 실제 매출규모는 국산차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 같은 수입차의 상승세에 맞서기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가 다양한 혜택 제공에 나섰다. 기아차는 국산 대형차를 보유한 고객이 2014 K9을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지원하고, 5월 중 K9을 출고하면 일진한 골프 클래스 레슨권, 특급호텔 패키지이용권, 그랑프리 드라이버, 파인비치CC 1박 패키지 중 하나를 제공한다.

쌍용차는 2009년식 이전의 체어맨 보유고객이 체어맨 H나 체어맨 W를 구입할 경우 최대 1400만원을 보상해주는 베스트 체인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1.9% 유예할부를 선택하면 32인치 LED TV까지 준다.

이들 차종과 달리 현대 에쿠스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아직까지는 제품력으로 수입차와 승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전문가는 "고급차 시장은 브랜드 이미지가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국내 완성차업계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책기자 ferrari@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윤리적 영업문화가 번져다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산업부 기자>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단 사건사고로 훼손된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톱스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톱스타를 TV광고 모델로 내세워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다. 하나은행은 최근 배우 김수현을 모델로 한 TV 광고를 선보였다. 광고업계에서 김수현의 1년 전속 모델료는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올해로 4년째 배우 하지원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있다. 하지원의 모델료는 연간 4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 측은 올해도 톱스타를 통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농협은행 역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야구선수 류현진과 2년간 18억여원에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수년동안 은행권은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당초 서민적인 모델을 고민했으나,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류현진의 이미지가 농협은행과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톱스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불가피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은행은 신뢰가 '생명'이다. 스타 광고모델로 인한 효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때다. 그동안 은행들이 단기 실적에만 몰입해 고객을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만 삼아왔다면 이제는 윤리적인 영업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각자에게 일맞은 상품과 서비스를 윤리적인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백마디 말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의공에 입장하 자리에 착석하려하고 있다 /연합

"안전시스템 전면 손질"

박 대통령 국무회의 "부처·각계 의견 수렴 곧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국민담화와 관련, "그동안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조만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일요일(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 또 국민이 불안해하는 재난안전문제 등에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과 내용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재난안전제도의 제계를 어떻게 잡착시킬지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진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초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 입장을 거듭 밝히고 정부 지원의 관련 후속 조치들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담화문에는 국가안전처 설치를 비롯한 재난대응시스템 개편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의 적폐 청산, 공무원 채용 및 인사시스템 개편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 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재고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생명과 안전에 투표!
2014 초록연대

생명·안전 강조 초록연대 발족 환경, 생태, 동물, 지역, 교육 분야 단체가 를 선험 초록연대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 를 생명 안전 정책 협약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에게 생명과 안전을 우선 정책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일 국장급 협의 15일 재개

위안부-북핵문제 등 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5일 일본 도쿄에서 재개된다.

외교부는 13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15~16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장급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지난달 16일 열렸던 국장급 협의의 후속 회의 성격으로 일본측 정부 대표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외에도 북핵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나 일본 지역 수산물 금지조치 등을 의제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핵심 의제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김민지기자

"추징금 회수하려 무리한 기소"

전재용 측 항소심서 주장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 측은 13일 법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해 제발된 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개신이 추징되고 있다. 이 사건이 추징금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은 재산이 거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의 무리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일가로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동의 땅 28필지 등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27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김다혜기자 yd@

13일 오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세모타운'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유대균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16일 출석하라"

검찰 소환 통보 · 장남 대균은 체포 실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1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현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등 여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 수사관들은 체포영장을 소지한 채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접촉을 시도했지만, 자택인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후 5시 30분께 강제로 진입했다. 그러나 대균씨가 집안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필요한 자료만 확보하고 철수했다.

대균씨는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를 비롯해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

2011년 7월에는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또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유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지만 유병언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마저 특별한 이유없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해수부 공무원에 향응·상품권 로비

한국선급 팀장 구속영장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감독 대상인 한국선급(KR) 간부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13일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A(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3년간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다른 팀장급 간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 선박 톤수 조사와 관련해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모(43)씨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선박설계업체 H사 대표 B(5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민준기자

사흘만에 수색 재개 시신 1구 수습

사흘만에 세월호 수색을 재개한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13일 사망자 시신 1구를 추가 수습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낮 12시 40분부터 합동구조팀이 수중 수색을 진행 중이며 시신 1구를 추가 수습해 사망자는 276명, 실종자는 28명이라고 밝혔다.

합동구조팀은 기상 악화와 선내 일부 구역이 칸막이 약화 현상 때문에 지난 10일 새벽부터 수중 수색을 중단했다가 3일만인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수색을 재개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새벽 잠수사 16명을 투입해 2시간여 동안 유도줄을 점검하고 3층 선미 통로·4층 선수 좌측 통로·4층 선미 다인실·5층 중앙 통로 등을 수색한 뒤 낮 정조시간에 다시 잠수사들을 투입했다.

/김다혜기자

'기우뚱' 오피스텔 철거

충남 아산시는 기울어진 오피스텔을 철거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라는 '조치 명령'을 13일 건축주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기울어진 오피스텔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로 옆에 있는 쌍둥이 건물은 외형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다혜기자

지역 대표 공예품 찾아요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부산 예선대회' 개최…내달 5일부터 온라인 접수

부산시는 제44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부산예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우수공예품을 발굴함으로써 공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공예품의 판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예선대회의 출품자격은 부산 사업자 등록소재 공예업계로 일반인은 주민등록지가 부산, 학생은 학교 소재지가 부산이어야 한다.

서류접수는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접수만 가능(www.crafts.or.kr)하며 공휴일도 접수한다.

작품접수는 시청 2층 전시실에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인은 주민등록 초본, 학생은 재학증을 지참해야 한다. 작품접수는 서류접수자에 한해 접수 가능하다.

출품대상은 전통공예의 기법과 조형성 등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와 일치해야 한다.

또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접목된 창의적 공예품으로 출품분야는 목칠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종이공예, 기타공예 등이다.

시는 대회결과 입상자 35명을 선정해 상금 및 공예개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위 25개 작품은 본선 전국대회에 부산시 대표로 참가해 지역예선을 통과한 전국 시·도와 함께 대통령상을 비롯한 국무총리, 장관 등의 상장과 상금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지난해 부산지역 예선에서는 6개 분야 516종 1068점이 출품돼 37명이 수상했다.

본선 전국대회에서는 25명이 출품해 17명이 수상하는 등 각 부문에서 골고루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통공예품 개발의욕을 고취해 부산 공예산업 발전 및 지역상품화를 유도, 판로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산공예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하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LS니꼬 울산공장서 폭발사고… 8명 중경상 울산시 울주군 LS니꼬 울산공장 제련2공장에서 13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부산, 올해 첫 오존주의보

올해 들어 부산에서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오후 1시를 기해 부산 강서·북·사상·사하구 등 서부산권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1시 강서구 녹산동측정소의 오존 농도가 0.123ppm을 기록하는 등 이들 지역의 오존 농도가 기준치(시간평균 0.12ppm)를 넘어섰다.

오존경보제는 주의보(시간평균 0.12ppm 이상), 경보(시간평균 0.3ppm 이상), 중대경보(시간당 0.5ppm 이상)로 구분해 시행된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낮 동안 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암 만큼 무서운 암 진단 후 정신적 스트레스"

암 환자는 누구나 신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최근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암 진단 후 1주일 동안 자살할 위험이 12.6배, 심혈관계통 사망 위험도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위험이 약 20배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암 수술 후 1년 이상 재발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 정도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암 환자의 경우 신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신건강의학과 심인희(사진) 과장은 "암 진단 후 1년간 암 치료로 인한 외모의 변화, 신체 기능 저하 및 통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가 극대화 된다"면서 "특히 피로감과 탈모 등 치료의 부작용으로 심리적 무력감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암을 진단받으면 환자 뿐 아니라 가족도 자료백과 암 정보를 두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암환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

심 과장은 "힘든 이 순간에 함께 하겠다"라며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라고 권유하기 보다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대처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양하균기자

좋은삼선병원 전신·비염 강좌

좋은삼선병원(병원장 송철수, 이사장 구정회)은 15일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에서 개원 19주년 기념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는 호흡기내과 윤늘북 과장이 '성인 천식과 비염'을 주제로, 정형외과 황타혁 과장이 '허리 통증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강연한다.

한편 당일 오후 1시에는 본관 1층 로비에서 무료 알레르기 검사를 할 예정이다.

부산우정청 "투표 참여하세요" 부산지방우정청(청장 이병철)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에 국민들의 관심과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우체국형 홍보발대식을 가졌다.

부산과학체험관 오늘 착공

부산시교육청은 14일 오후 3시 동구 범장6길 옛 부산디자인고교에서 (가칭)부산과학체험관 기공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과학체험관은 42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면적 1만1천552㎡ 규모로 2015년 9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열과 운동(H&D), 전자기(EM), 소리와 파동(S), 빛(L), 지구 및 생명과학(E&B), 수학과 융합(M&A) 구역으로 나눠 기초과학 관련 200여 종의 체험물을 설치한다.

과학체험관은 학생들이 과학적 호기심이 생길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고, 과학실험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영락공원, 고속 화장로 개발

부산시가 운영하는 종합 장사시설인 영락공원이 증가하는 화장(火葬) 수요에 대비, 효율 높은 고속 화장로 개발에 나섰다.

영락공원은 중소기업청 신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된 고속 화장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현재 시설은 화장하는데 75분가량 걸리지만 고속 화장로는 40분으로 줄일 수 있다.

시신을 화장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 대기 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여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고 영락공원 측은 설명했다.

영락공원은 고속 화장로 개발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결정되면 5억원을 투입해 2년 안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의 화장률은 87.8%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OLED 고효율 신기술 나왔다

부경대 김용련 교수 개발 - 제작공정 간단하고 비용절감 효과도

부경대학교는 이 대학 이미지시스템공학과 김용련(사진) 교수가 스마트폰과 TV의 디스플레이로 쓰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빛을 종전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는 '나노 광추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술은 OLED분야의 현안인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조명용 OLED 상용화를 앞당기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조명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투명한 금속산화물을 이용해 '나노 광추출 시스템'을 개발, 백색 OLED 내부에 적용했다"면서 "그 결과 빛을 내는 정도인 광추출 효율이 기존의 소자에 비해 1.7배나 높아졌고 시야의 각도에 따른 빛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OLED는 낮은 소비전력으로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고, 얇고 휘어지는 특성으로 LCD의 뒤를 이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백색 OLED는 형광등을 대체할 조명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광추출 효율이 매우 낮아 실제 소자에서 발생하는 빛의 25%만이 외부로 발산되고 나머지는 소자 안에 가둬져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의 '나노 광추출 시스템'은 빛 산란 효과에 의해 OLED 내부에 가둬져 있는 빛을 소자 외부로 뽑아내는 데 성공, 고효율의 OLED를 구현하고 상용화를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스템을 외부 광추출 렌즈와 결합시켰을 때 광추출 효율이 2.9배나 높아졌다.

이 시스템은 제작공정이 매우 간단하고 큰 면적으로도 쉽게 구현되기 때문에 조명용 백색 OLED의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연구진은 OLED에 들어가는 투명전극으로 기존의 값비싼 금속산화물 대신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해 비용절감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를 담은 김 교수의 논문은 최근 재료공학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5월호에 게재됐다.

이 연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종희 박사(공동주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원목 박사, 독일 Dresden University of Technology의 Karl Leo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하수처리장 명칭 변경 이제는 물 재생센터로

노심 혐오시설에서 친환경시설로 탈바꿈 중인 부산의 하수처리장 명칭이 '물 재생센터'로 통일된다.

부산환경공단은 직원 429명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명칭 통일을 위한 공모와 투표를 한 결과 물 재생센터(41.3%), 맑은 물 순환센터(22.4%), 물 자원센터(18.6%), 수질 재생센터(12.1%) 및 에너지센터(5.6%)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하수처리장 명칭은 부산시 위탁운용조례에는 하수처리장, 부산환경공단 규정에는 00사업소, 하수도법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물 재생센터(서울·경기도)로 부르고 있고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하수처리장 또는 00사업소 등을 혼용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명칭 통일을 위한 공모와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환경공단은 다음 달 하수처리장 명칭 변경(안) 경영자문위원회 자문과 시민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8월께 물 재생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산시는 벡스코 등 15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목표 달성도 등 경영 전반에 걸친 평가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다음 달부터 8월까지 현장확인, 해당 기관의 고객 만족도 등을 조사해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평가 등급(가~마)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부진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세계 제과제빵박람회 개최 롯데호텔부산은 15일부터 17일까지 '제16회 세계 제과제빵박람회'를 연다. 사진은 12일 오전 11시 30분 롯데호텔부산 1층 로비에서 이번 박람회에서 제공할 다양한 상품들을 들어보이며 사진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행사는 기간 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롯데호텔부산 1층 로비에서 열린다. /롯데호텔부산제공

남항에 유람선 추진…'안전성 논란'

시 "배 크기 제한하고 관제센터 운영 땐 큰 문제없어" 수산단체 "조류 빠르고 항로 좁아 선박 충돌 위험 커"

"해상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부산항 남항을 기반으로 하는 유람선을 띄워야 한다."(부산시)

"남항은 소형 선박 통행량이 많고 조류가 빠르며 항로가 좁아 유람선이 운항하면 충돌사고 위험이 크다."(수산업단체)

부산시가 부산항 남항을 기반으로 한 유람선을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남항에 있는 수산업단체들이 선박 충돌사고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자갈치시장 친수시설을 유람선 선착장으로 활용, 부산항 북항과 남항을 오가는 유람선을 띄우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자갈치시장~오륙도~광안대교를 항로로 70~80t짜리 유람선을 띄운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정도 크기 선박은 길이 30m 안팎, 정원 100~150명 정도 된다.

부산시는 유람선 크기를 제한하고 관제인력 6명과 폐쇄회로(CCTV), 레이더 장비, 초단파 무선통신(VHF) 장비 등을 갖춘 해상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면 안전운항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남항에 있는 수산업 단체들은 "선박충돌 사고 위험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수산업단체는 "남항은 항로 폭이 좁고 조류가 빠른데다 많은 선박이 계류해 있고 레이더나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는 고사하고 무전기도 없는 소규모 통선 수백 척이 운항하고 있어 유람선이 운항하면 충돌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형선망수협 측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완공되면 남항을 오가는 어선이 많이 늘어나 사고위험이 더 커진다"며 "부산시가 유람선 취항을 가정한 선박 안전성 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람선 취항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교육데이-봄' 21일부터 사흘간 열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감만창의문화촌에서 '2014 문화예술교육데이-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와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문화예술교육데이-봄>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의 의미와 지역적 과제'에 대한 부산대학교 이병준 교육학과 교수의 특별강연과 워크숍으로 마련된다.

워크숍1 '문화예술교육의 로컬리티'에서는 온누리 오케라단, 명장동무도서관, 이마고를 비롯해 지구인의 정거장(경기), 문화예술센터 결(울산), 고걸싶(전북)과 같은 전국의 우수 문화예술교육자와 단체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워크숍2 '느낌!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샌드 애니메이션, 몸놀이, 한지미술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준비돼 있다.

문화예술교육 라운지에서는 세계 문화예술교육 다큐멘터리를 감상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팀 박소윤 팀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과 문화예술교육자들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과제와 비전을 공유해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ba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하균기자

벡스코서 20일 채용박람회

영남권 최대 규모 채용박람회인 '2014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가 2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다.

지역 15개 관계기관, 고용우수·외국계 기업 등 200여 개 기업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1천500여 명을 채용한다.

본 행사에 앞서 13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참가기업 정보와 채용 요강 안내 등 '사전 취업전략 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환경부의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영남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린다.

EU, 푸틴 최측근 등 제재

기업 2곳에도 칼끝… 우크라 동부 2개주 독립 선포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정부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추가 제재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크림공화국의 고위 인사 등 개인 13명과 크림반도 기업 2곳에 대해 EU 내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뱌체슬라프 볼로딘 크렘린 행정실(대통령 비서실) 제1 부실장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 제재에 이어 EU 제재까지 받게 됐다. 볼로딘 부실장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을 총괄한 인물로 평가된다.

크림 공화국 인사도 제재 대상이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슬라뱐스크의 '인민 시장'을 자처하는 뱌체슬라프 포노마료프 등 분리주의 세력도 EU의 제재를 받는다.

EU는 또한 우크라이나 국영가스회사의 크림반도 자회사인 체르노모르네프테가스와 석유운송업체 페오도시아 등 기업 2곳에도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EU가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기업은 크림반도 편입 후 러시아에 몰수됐다.

한편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는 이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에 병합을 요청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크림반도 합병때와 달리 동부 지역의 독립을 곧바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서방은 주민투표 과정이 불투명하고 적법하지 않다며 투표 결과와 독립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seuonn@metroseoul.co.kr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주민들이 분리·독립 주민투표 결과를 축하하고 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십자가와 휴대전화를 든 채 하늘을 응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번엔 진짜 폭발한다"

중국 부동산 거품 경고 확산… 30% 폭락 예상도

"중국 부동산의 거품 대폭발이 이미 시작됐다."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이같은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영국 최대 은행인 바클레이스가 중국 부동산 거품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이 올해 7.2% 성장을 달성한다면 부동산 거품이 점진적으로 빠지겠지만 6~6.5% 성장에 그칠 경우 심각한 '하강 위험 시나리오'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의 집값이 전국에 걸쳐 평균 30% 이상 폭락하면서 경제성장 또한 5% 밑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조지 매그너스도 파이낸셜타임스(FT) 기명 기고서 중국 부동산 거품 폭발을 강하게 경고했다.

매그너스는 "그나마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낫다면서 제2군과 제3군 도시의 부동산 매물 누적은 훨씬 더 심각하다"며 "앞으로 2년이 특히 고비"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노무라도 "중국 부동산이 폭발할지 아닐지는 더는 의문이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폭발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라고 경고했다.

/이국명기자 kmlee@

고등학교 마당에 양귀비 가득

metro HongKong

방문 학부모 경찰 신고

최근 중국 허난성 저우커우시 제1고등학교에 '양귀비밭'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양귀비는 마약인 헤로인의 주성분으로 중국에서는 재배가 금지된 식물이다.

저우커우 제1고등학교 내 공터 약 6㎡ 면적에 키가 40㎝나 되는 양귀비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한 학부모는 우연히 학교를 찾았다가 양귀비를 발견하고 깜짝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양귀비를 제거했다. 모두 783그루였다. 현재 경찰은 누가 심었는지 조사 중이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를 500그루 이상 재배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500그루 이하는 구류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귀비 재배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당국의 관리감독도 소홀,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양귀비 외에도 이 학교는 독특한 점이 또 있다. 학교 측은 최근 '18개 교칙' 이성교제를 반대하며 남녀학생의 비정상적인 만남에 대한 처리법'을 만들었다. 위반사항은 A~D등급으로 나뉘고 학생들은 등급에 따라 벌점이나 근신처분을 받는다.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양호실에서 링거맞기, 문자 보내기, 선물하기, 밥 먹기 등의 행위들은 모두 위반 사항이다.

학생들은 이 규정에 대해 "말도 안 된다", "친구랑 밖에서 밥 먹을 때도 마음 졸여야 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리=조선미기자

월드컵 열기 무색 호텔 예약 60%

metro Brazil

월드컵 열기로 과열되는 듯했던 브라질의 호텔 산업이 예상보다 못한 결과를 내고 있다.

벨루 오리존치 시청은 숙박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까지 실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렸으나 상황이 여유지 않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당초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예약률이 60%에 그쳤기 때문.

예상 보다 낮은 예약률에 당황한 숙박업자들은 월드컵이 열리는 6월과 7월 사이의 숙박료를 내리면서까지 고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요는 이전의 정체 상태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스미싱 2년만에 400배…금전피해 가능성↑

스미싱 악성코드 발견 건수가 2년 만에 400배나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랩은 올 1분기 발견된 스미싱 악성코드가 2062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504개, 2012년 1분기 5개에 비해 각각 4배, 40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스미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사전에 유출된 개인정보나 스미싱을 통해 빼낸 통신사 정보, 인증용 문자메시지 등을 결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미싱을 통해 악성앱을 설치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주소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통신사 정보, 문자메시지 등 금융 거래와 결제에 필요한 정보가 새나가 금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승원 안랩 분석팀 책임연구원은 "문자메시지나 SNS에 포함된 인터넷 URL은 되도록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바일 백신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 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국명기자 kmkim@

해외지수형ELS 코스피 대안될까

글로벌 주가 고점 우려…상환부진 흐름도 유의해야

기초자산으로 해외 주가지수를 연동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증시의 주가 수준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동양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지수형 ELS 발행액은 3조7775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ELS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져 지난 4월 전체 발행액 5조4060억원의 70%에 달했다.

증권사들은 높은 수요에 힘입어 잇달아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ELS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선호하는 해외지수는 주로 홍콩과 유럽 증시로 나타났다.

4월 발행된 해외지수형 ELS의 78.3%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에 쏠렸고, 57.5%는 유로스톡스50(SX5E)에 집중됐다.

이들 ELS 상품은 수년째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함께 설정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지수형 ELS도 완전한 투자대안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해외 지수가 꼭지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동석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해외 지수들은 코스피보다는 주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ELS의 옵션에 닿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인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건 맞다"면서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헤지 수요가 있다는 측면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금융회사는 글로벌 IB들이 보유한 HSCEI 또는 SX5E 등의 콜옵션(자산을 살 권리)을 사들여 해외 지수형 ELS를 발행한다.

오 연구원은 "글로벌 IB들이 이런 지수에 대해 콜 옵션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이들 증시가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증시에서 홍콩 지수나 유럽 지수가 큰 폭으로 주가 상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외 지수 약세로 최근 ELS 상환이 부진한 흐름도 나타났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3월 ELS 상환 규모는 2조2809억원으로 3개월째 감소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ELS 시장에서도 해외형 상품이 대세"라면서도 "다만 최근 ELS 상환 감소세는 HSCEI의 하락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7em1@metroseoul.co.kr

나이스정보 전산센터 정전

가맹점 카드 결제 한때 중단

카드사 결제 승인 대행 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 전산센터에서 정전이 발생해 해당 단말기를 쓰는 가맹점 카드 결제가 마비됐다가 2시간 여만에 복구됐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여의도에 위치한 나이스정보통신 전산센터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 카드 결제와 나이스가 발급을 대행하는 홈플러스 전자상품권 사용 등 해당 단말기를 쓰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 결제가 중단됐다.

이날 정전으로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등급 조회사이트도 마비되면서 신용등급 조회 고객들 역시 불편을 겪었다.

나이스정보통신 관계자는 "이번 전산장애는 전원공급장치 이상으로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오전 9시경에 나이스평가정보와 나이스정보통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오전 10시 15분부터 서비스를 복구하고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NICE평가정보와 NICE정보통신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나이스정보통신은 매출액 기준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밴(VAN)사로 국내 가맹점 가운데 약 15%가 나이스정보통신의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나기자 aslwol2013@

이기모델은 바로 나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이보리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회 보솜이 아기모델 선발대회' 카메라 테스트에 참여한 아기 모델들이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카메라 테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1만 6000여명 가운데 기저귀 착용컷 심사를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한 40여의 예비 아기모델들이 참여한다. /깨끗한나라 제공

4월 ICT 수출 147억 달러

월별 기준 최대…휴대폰·반도체가 견인

4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47억 달러로 월별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신흥국 소비 부진, 환율 하락 등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ICT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47억6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이처럼 4월 ICT 수출이 증가한 데에는 휴대전화, 메모리 반도체, 디지털TV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상승세가 지속된 요인이 컸다. 특히 지난 하반기 이후 수출이 부진했던 시스템반도체도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48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했으며 휴대전화 수출은 갤럭시S5 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한 24억5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디지털TV도 선진국 시장 회복세와 브라질 월드컵 특수가 맞물리며 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7% 늘었다. 메모리반도체는 25억7000만 달러, 시스템반도체는 17억4000만 달러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4.4%, 4.5% 수출이 확대됐다.

최근 ICT 수출 호조 지속으로 4월 월별 기준 및 누적 기준 수출은 각각 147억6000만 달러, 559억1000만 달러로 최대 실적을 보였다.

4월 ICT수지는 74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국내산업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도 기여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82.53 (+17.99)	557.11 (+5.76)	2.88 (+0.01)	1022.00 (-2.40)

뉴스&뉴스

마늘 5년 만에 최저가 12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난지형 저장 마늘(상품) 1kg 가격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인 2300원으로 급락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 피해자 집단소송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3일 피해자 5만여 명을 대리하고 있는 원희룡 전 의원과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은 "소송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와중에 2차 피해 우려가 높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드사들은 각종 조사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손배소송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첫 변론기일은 소장이 접수된지 70일이 넘었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채신화기자

양도세 내달 2일까지 신고

●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 납부 대상자 2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올해 안내 대상은 예정신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난해 3만명에 비해 20% 줄었다. /김민지기자 mnjs@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전 대표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명환
서울광고문의	02)721-9351~3
부산광고문의	051)557-2100
독자센터	02)721-9801

대우건설-삼성물산, 용산 주상복합 '맞짱'

입지·브랜드경쟁력 비슷, 단지 구성은 달라

한국의 '맨해튼'을 꿈꾸며 초고층 빌딩 개발에 한창인 서울 용산 한강로 일대에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친다. 이달 각각 39층과 40층 높이의 '용산 푸르지오 써밋'과 '래미안 용산'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 나서는 것.

분양 시기가 비슷해 청약 열정이 다르더라도 먼저 분양하는 단지에 수요자를 뺏기는 일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대로 나중에 나오는 단지는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해 앞서 공급되는 단지가 외면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두 건설사의 경쟁이 뜨거워질 보인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월 중 용산역전면2구역과 3구역을 재개발한 '용산 푸르지오 써밋'과 '래미안 용산'이 분양된다. 두 단지 모두 지난 2004년 청약인원 25만여 명, 청약신청금 7조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시티파크'의 뒤를 이을 기대주로 평가받고 있다.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넘보는 두 단지인 만큼 입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용산 푸르지오 써밋'이 한강변과 '래미안 용산'이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과 더 가깝지만 '래미안'에서도 한강은 보이고, '푸르지오'도 걸어서 3분이면 지하철역 이용이 가능하다.

장재현 부동산렉트 팀장은 "굳이 따지자면 쾌적성은 푸르지오, 편의성은 래미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의미한 수준의 차이"라며 "서울 전체적으로 볼 때 풍부한 교통망, 한강 공원 등의 쾌적한 자연환경 등을 갖춘 노른자위 입지"라고 분석했다.

(좌)용산 푸르지오 써밋 (우)래미안 용산 투시도.

단지 구성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대우건설은 주거동과 업무동을 분리하고, 주거동 전용 조경공간을 조성했다.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 바닥재 및 빌트인가구를 최고급으로 적용해 랜드마크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역은 물론 푸르지오를 대표할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용산 푸르지오 써밋에 역량을 집중했다"며 "욕실 수도꼭지와 같은 작은 부분부터 새대 내 들어가는 빌트인가구까지 최대로 고급화해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삼성물산은 각 동 21~40층 상부층에는 아파트를, 하부층에는 오피스텔을 배치했다. 보다 많은 세대에서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한 조치다. 오피스텔은 하부층으로 들어가는 대신 전용면적 42~84㎡ 15개 타입으로 구성해 신경을 많이 썼다. '용산 푸르지오 써밋'의 오피스텔은 24~45㎡ 소형으로 이뤄져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 대부분이 소형으로 지어져 실사용공간이 좁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어렵다"며 "래미안 용산 오피스텔은 주거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지어져 상층부의 고품격 아파트들과 함께 최고급 주거상품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욱기자

은행 순이자마진 회복되나

2분기 회복세 전망 … 기준금리도 오를 듯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지난 1분기에 크게 하락하면서 2분기에는 상승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해 1분기 영업실적을 보면 이 기간 이자이익은 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3000억원)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4분기 2000억원 소폭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 다시 감소하며 2011년 4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이어갔다. 특히 순이자마진은 1.8%로 2009년 2분기 1.72%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0년 3분기 2.19%에서 2011년 1분기 2.38%로 증가한 뒤 같은 해 2분기 2.33%로 떨어진 이후 2012년 2분기 2.14%, 2013년 2분기 1.88%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순이자마진은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해 운용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국고채 3년 금리는 지난해말 이후 2.8%대 후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원화대출채권 평균금리가 지난해 4분기 4.61%에서 올 1분기 4.51%로 하락했다"며 "사중금리는 안정됐으나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것이 순이자마진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2분기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금융권의 각종 악재가 2분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순이자마진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이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다연기자 mine@

여행마니아 놀러오세요

현대카드 전문도서관 오픈

현대카드는 여행 전문 도서관 '트래블 라이브러리(Travel Library)'를 서울 청담동에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문을 연 '디자인 라이브러리'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전문 도서관인 트래블 라이브러리는 1만4000여권의 여행 관련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서적들은 위도와 경도처럼 테마와 지역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13개의 주요 테마와 전 세계 1위 개국을 망라한 지역별로 분류돼 있다.

특히 각 지역과 탐험, 사진 등 주요 테마별 전문성을 갖춘 4명의 글로벌 서적 전시 전문가가 참여해 도서를 선정했다.

/박에란기자 sl

미소기 경쟁력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이 13일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승무원 훈련센터에서 미소교육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은 기존 서비스 교육에 더해 매년 2차례 모든 승무원을 대상으로 미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제공

코스피 다음달 2050 넘는다?

실적개선·수출증가로 고점 돌파 가능성

코스피가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박스권 고점인 205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2011년 하반기 이후 박스권에 갇혀 7차례나 2050선을 넘는 데 실패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6~7월 코스피지수가 8번째로 도전해 7전8기로 205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술적으로 고점이 막혀 있으나 저점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점이 고점 돌파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지난 3년간 코스피 저점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기준으로 1880에서 최근 1910선까지 꾸준히 상향조정됐으므로 방향성이 아래보다 위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수출 증가세도 코스피의 고점 돌파를 이끄는 동력으로 꼽혔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연간 순이익은 83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2년 82조2000억원에서 2013년 77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난 규모다.

올해 상장사 순이익 전망치는 보수적으로 전망해도 올해 1분기 20조7000억원, 2분기 21조8000억원, 3분기 25조5000억원, 4분기 23조6000억원으로 제시됐다.

지난달 사상 두 번째로 500억달러를 돌파한 수출 역시 5~6월 다시 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40조원 넘는 대차잔고도 투자자들이 잔고 해소에 나설 시 코스피를 끌어올릴 잠재 요인이 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친 대차잔고는 지난달 초 47조원대로 역대 최대치까지 늘었다가 최근 46조원대로 줄어들었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 총괄팀장은 "코스피는 3년 만의 기업 실적 개선과 수출 증가 등으로 올해 중반께 고점은 돌파할 것"이라며 "(주가가 오를 때를 기다려 빌린 주식을 갚지 않고 쌓아둔) 대차거래 투자자들이 잔고 해소를 위해 주식 매수에 나서면 코스피는 단숨에 100포인트 더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정기자 h.kim1@

모바일 게임 실적 '쌩쌩'

영업익 1년새 8배 증가
해외 개척 효과도 기대

모바일게임 관련 기업들이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고 있는 온라인게임사와 대조를 이룬다.

카카오는 13일 모바일게임 플랫폼 '카카오게임'의 누적 가입자 수가 5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출시 1주년인 2013년 7월 3억명을 기록했던 카카오게임은 지난해 11월 말 4억명을 돌파한데 이어 약 5개월만인 올해 5월 초 누적 가입자 수 5억명을 넘었다.

론칭 당시 7개 파트너와 10개 게임을 선보였던 카카오게임은 현재 230여개 이상의 국내외 파트너와 46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모바일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캐주얼게임을 비롯해 RPG(롤플레잉게임), 스포츠, 음악 등 다양한 인기 장르의 게임들을 보유한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이미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 2108억원, 영업이익 658억원, 당기순이익 61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매출은 357%, 영업이익은 843%, 당기순이익은 1058% 늘어난 수치다.

특히 카카오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카오 게임하기'를 거친 중개 매출은 2012년 320억원에서 지난해 1777억원으로 급상승했다.

5억명을 기반으로 한 2014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 대표 모바일 게임사 게임빌은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올렸다.

같은 날 실적 발표에 따르면 게임빌은 1분기에 매출 278억원, 영업이익 38억원, 당기순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보다 각각 24%, 104%, 28% 성장한 수치다.

국내외 시장에서 골고루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국내 매출은 '별이되어라!', '제노니아 온라인' 등의 흥행으로 전 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하며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해외 매출은 1분기 중 글로벌 기대작의 출시 공백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0%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낚시의 신'이 40여일 만에 글로벌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311% 증가했다.

게임빌 관계자는 "해외시장 개척 효과가 추후에 나타날 경우 커리어 하이 실적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KT, '올레내비'가 최저가 주유소 찾아드려요

'올레내비'로 최저가 주유소 찾아요 KT는 올레내비에 경로 중 최저가 주유소 안내 기능을 추가하고 도착 예정 시간 정확도 및 UI 등을 개선하는 최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KT제공

벤처 글로벌 진출지원 본격화

국내·외 '액셀러레이터'가 손잡고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2014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발대식'에서 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닷네임코리아, 벤처스퀘어, 스파크랩, 디쓰리쥬빌리, 벤처포트 등 5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3억5000만원씩을 지원받아 해외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협력해 특화된 전문분야와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각 기관별로는 이달부터 각각 10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선발하며, 4~6개월간 국내·외 보육을 거쳐 글로벌 제품 출시, 해외 투자유치 등을 안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테크스타, 런던 플러그 앤 플레이, 스파크랩 글로벌 벤처, 빌리지 캐피탈, 상해하등 IT기업협의회, 스타트업 이스트 등 해외 파트너와 협력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을 공동 선발하고 각종 아이디어 발굴을 도울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스파클링 워터 드세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삼성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모델들이 삼성 지펠 T9000 스파클링 냉장고 워터 기능을 시연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태블릿도 넘버원 넘본다

애플과 격차 6.3%P로 역전 기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한 삼성전자가 태블릿 시장 제패까지 넘보고 있다.

지난 1분기 사상 최고 점유율을 올리며 애플과의 격차를 역대 최저인 6.3%포인트까지 좁혀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1분기 태블릿PC 판매량 집계 결과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1200만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22.6%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태블릿PC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애플은 1640만대의 태블릿PC를 판매해 28.9%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지켰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3%나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의 33.7%와 견주면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애플과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도 전년동기 21.4%포인트에서 6.3%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이에따라 조만간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소비자잡지 컨슈머리포트 제품 평가에서 삼성전자가 내놓은 태블릿PC 갤럭시탭 프로 시리즈가 1위를 차지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SA는 "올해 1분기는 삼성전자와 레노버만 성장했다"며 "삼성전자는 다양한 고객 취향을 만족시키는 태블릿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지난해보다 40% 성장했으며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를 계속해서 좁혀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국명기자

아이폰6 NFC도 품나

4.7인치에 탑재될 듯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6 (가칭)의 출시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대만의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6는 당초 9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한 달 이른 8월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구체적인 화면 크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4.7인치 모델은 8월에, 5.5인치 모델은 9월에 소비자를 만날 계획이다.

특히 '아이폰6'에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미 중국의 대형 은행을 비롯해 NFC 협력사들과 세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IT매체 소프트피디아는 "애플이 중국 은행을 중심으로 거대 모바일 결제 생태계를 구축 중이며 관련 특허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NFC 센서는 홈 버튼 부근에 위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였다.

애플은 NFC 관련 내용을 오는 6월 세계 개발자컨퍼런스(WWDC)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NFC는 15㎝ 이내 거리에서 단말기와 다른 기기를 접촉하는 통신 방식으로 교통카드나 전자지갑 등의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알뜰폰, 단통법 재미볼까

가격경쟁력 기대···제조사 역할 중요

알뜰폰(MVNO) 업계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에 반기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는 지난달 총 11만1897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지했다. 이로써 알뜰폰 가입자는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5%를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알뜰폰 업계의 성장은 최근 이통3사의 영업정지로 인한 반사이익의 영향이 컸다. 알뜰폰은 영업정지 이전인 지난 2월 월간 가입자를 6만9096명 유지하는데 그쳤지만 이통3사 영업정지가 시작된 3월 8만7174명, 4월엔 11만1897명의 가입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5월 20일부터 영업정지를 모두 마친 이통3사가 영업재개에 들어가면서 통신 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할 것은 예상,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된 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단말기 유통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던 알뜰폰 업계지만 막상 이 법안이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는 결국 단말기 유통법이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고 단말기 출고가를 내려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게 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알뜰폰 업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대해 반기면서도 이통3사와 제조사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도입 취지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알뜰폰 업계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 현재 제조사에서 이통3사로의 단말기 유통 단가와 알뜰폰 업계로의 단말기 유통 단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문량 자체에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많은 수량의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통3사의 경우 알뜰폰 업체보다 단말기를 보다 싸게 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알뜰폰 업계는 단말기 정찰제가 이뤄지고 출고가 자체가 낮아야 이통3사와의 단말기 도매가격 차이도 줄어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알뜰폰 업계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는 10월 이전까지 이통사와 제조사의 행보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정지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통사와 신제품 출시에도 이통사 영업정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한 제조사들이 보조금과 장려금을 앞세워 시장을 또다시 혼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결국 단말기 유통법이 당초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건전한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조사뿐 아니라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 다음, 영업익 32.7% 감소

모바일 검색광고 매출은 ↑

포털 다음의 매출이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다.

다음은 1분기 영업이익이 1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 줄었다고 13일 공시했다.

매출은 1271억원으로 1.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83억원으로 56.9% 감소했다.

1분기 검색광고 매출은 네트워크 사업 매출 증가, 모바일 검색광고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646억원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은 경기침체에도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광고플랫폼 '아담'과 TNK팩토리 모바일 쇼핑 매출 증가로 2.9% 증가한 525억원으로 집계됐다.

게임 매출은 PC 퍼블리싱 매출 성장에도 웹보드 게임 채널링 매출과 온네트 퍼블리싱 매출 감소에 따라 5.2% 감소한 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다음 앱은 지속적인 유지 유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용자는 44%, 설치횟수는 55% 늘었다.

한편 다음은 19일부터 새로운 UI(사용자환경)와 콘텐츠를 담은 다음 앱과 모바일 첫 화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넓고 시원한 화면 구성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들이 전하는 마음은?

KB국민카드 '마음을 씁니다' 캠페인

무뚝뚝하고 말은 없지만 늘 뒤에서 묵묵히 서 있던 아버지. 쑥스럽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마음을 표하지 못했던 아들.

그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차표를 구매한다. 두 남자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기차 여행은 어떻게 이어질까.

오는 17일 영업재개를 앞둔 KB국민카드는 최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하지 못했던 마음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응원하는 기업PR광고 '마음을 씁니다'를 선보이고 있다. '마음을 씁니다'의 첫 번째 광고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첫 기차여행'편.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아들이 구매하는 기차표는 단순한 소비행위가 아니다"라며 "아버지와의 첫 기차 여행을 위해 아들이 구매하는 기차표에는 감사, 사랑 등 많은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고객의 카드생활이 단순한 소비범위를 넘어서 따뜻한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게 KB국민카드의 시각이다.

GS건설 '한강 센트럴 자이' 16일 청약

GS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에 들어서는 미니신도시급 대단지 '한강 센트럴 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35개동, 전체 407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70㎡ 662가구 ▲81㎡ 244가구 ▲84A㎡ 730가구 ▲84B㎡ 519가구 ▲84C㎡ 1122가구 ▲84D㎡ 57가구 ▲100㎡ 107가구 등 3481가구가 1차로 분양된다.

김포한강신도시와 바로 접해 있어 신도시 내의 다양한 주거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안근에는 수변 스트리트상가(라베니체)도 계획돼 있다. 또 김포도시철도가 2018년 말 개통 예정으로, 이를 이용하면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30분 전후로 소요된다.

단지는 '가족'을 콘셉트로 가족구성원들이 특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캠핑데크'와 녹음 속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놀이터' '자이펀그라운드' 가 5곳이나 조성된다. 또 면적의 40% 이상이자 축구장 10배에 달하는 약 7만2000㎡의 대규모 조경공간이 들어선다.

GS건설 '한강 센트럴 자이' 84C타입 이미지

교육특화를 위해 외국어 교육기관인 SDA삼육외국어학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SDA삼육어학원은 오는 2017년 1월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단지 내 근린시설 내 학원을 오픈할 계획이다. 입주민에게는 우선등록 혜택 3년과 학원비 20% 할인을 2년간 준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73만원으로 최저 861만원부터 시작해 2년 전 분양한 브랜드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무이자를 제공해 전세에 지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조기 자금부담을 낮췄다.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2순위, 19일 3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23일 당첨자발표, 28~30일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5-1번지에 마련됐다. 문의 1644-1988

이건희 회장 재산 12조 넘어

상장주식 부자 1위 · 이재용 등 가족 포함땐 20조

최근 건강 악화 등으로 치료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 규모가 1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주식, 부동산 등 등기자산만 계산한 것으로 실제 재산은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벌닷컴은 13일 이건희 회장 일가 4명이 보유한 상장사와 비상장사 보유 지분가치, 부동산(공시가격) 등 등기자산을 따진 재산은 조사한 결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12조원을 포함해 20조6090억원이라고 밝혔다.

상장 계열사 지분가치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비상장사는 상속증여세법상 가치평가 기준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이 보유한 재산은 12조8750억원이다. 이 회장은 상장사 지분과 비상장사 지분을 각각 11조7180억원과 479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으로 추산한 부동산 등 등기자산도 6780억원이다.

이 회장의 재산은 상속을 통해 이뤄졌고,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상장사 지분을 보유해 상장주식 부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은 3조9640억원으로 일가 중 두 번째로 많다. 상장사 주식 1조2220억원과 비상장사 주식 2조6900억원, 기타재산 520억원 등이다.

이어 홍라희 삼성미술관리움 관장은 상장사 주식 1조5460억원과 부동산 등 기타재산 310억원을 합계 1조577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사장의 재산은 각각 1조1290억원과 1조640억원이다. 두 사람은 상장사 주식이 있고, 대신 삼성SDS 등 비상장사 주식을 1조원 이상씩 보유했다. 또 부동산 등 기타재산도 각각 400억원 가량 갖고 있다.

/김태균기자 ksc1@metroseoul.co.kr

"기본 지키는 문화 중요하다"

구본무 회장 세미나서

구본무(사진) LG 회장이 13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5월 임원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에서도 안전과 품질에 있어 방심하거나 소홀한 점은 없는지 근본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영진과 특히 CEO들이 이를 책임지고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 회장은 이날 경영진에게 "변화에 둔감하고 관행에 익숙해 있으면 결코 시장을 선도할 수 없다"며 "한발 앞서 변화의 흐름은 읽어 내고 우리의 강점으로 남다른 고객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 "고객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투자하고 젊은 키워 나가야 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강한 책임감으로 일을 주도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임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또 "선도 상품의 출시와 승부를 걸 시장, 일하는 방식까지 시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LG 경영진은 "사물인터넷과 비즈니스"를 주제로 진행된 경희대 이경전 교수의 특강을 통해 사물인터넷 기술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변화가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향후 사업 기회 요인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이날 임원세미나에는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균기자

SKT 대한항공 엑설런트 T로밍 SK텔레콤과 대한항공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업무 제휴를 맺고 대한항공 엑설런트 T로밍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제습기 구매, '이것만은 따져봐야'

전기료·소음·바이러스 등 해결하는 제품 주목

한반도 기후가 고온다습한 아열대성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제습기가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제습 기능을 넘어 부가기능을 탑재한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나에게 적합한 제습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제습기 구매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현명한 제습기 구매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기료 부담 걱정마세요"

최근 경제침체 속 전기료 인상에 따라 소비전력을 낮춰 주는 절전형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습기 또한 절전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제습기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하루 최대 8시간 이상 가동되는 제품으로 전기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한 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마크 안에 있는 제습 효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습 효율은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를 의미하며 제습 효율이 높은 제품이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절전형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습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컴프레서를 확인해 보자. 최근 출시되는 제습기에는 초절전형 냉장고, 에어컨에 사용되는 디지털 인버터 기술이 적용돼 압축기의 출력 및 에너지 양을 제어, 뛰어난 제습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

◆소음 수준도 알아봐야

제습기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확인하거나 저소음 구현을 도와주는 컴프레서가 탑재돼 있는지를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를 제습기에 적용할 경우 컴프레서가 습도에 따라 가변적으로 작동하므로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삼성 인버터제습기의 경우 인버터 압축기로 저소음을 실현, 정속형 제품 대비 4dB 이상 소음이 적다. 여기에 기반 제어를 통한 정음 모드로 1dB 더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세균, 곰팡이 걱정까지 끝!

실내습도가 높은 장마철, 주부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바로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물론,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고민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삼성 인버터 제습기는 삼성전자의 독자 제균 기술인 바이러스닥터를 적용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부유진균,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바이러스 등을 함께 제거해 쾌적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 준다. 또한 바이러스닥터 기능은 장마철 불쾌한 냄새의 원인 중 하나인 부유곰팡이(진균)를 99.9%까지 잡아줘 옷이나 침구, 수건 등에서 나기 쉬운 퀴퀴한 냄새 걱정도 덜어 준다.

/이국명기자 kyoon@

굿윌스토어, 고객 1만 돌파

효성, 사회적기업 눈길

효성이 설립한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이 지난해 10월 오픈 이후 구매고객 1만명을 돌파했다.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은 이를 기념해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음료를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를 12일부터 17일까지 연다.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은 오픈 한지 반년 만에 매출액이 1억원을 넘었다. 특히 3만 여점의 상품을 판매했고, 물건을 구입한 고객수도 1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기증과 구매참여, 지역 주민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효성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에는 PET병을 생산하는 효성 패키징PU 고객사인 웅진식품이 행사 취지에 공감해 음료를 기증했다.

굿윌스토어는 기증품을 판매해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효성이 국내 기업 최초로 지난 2013년 10월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매장을 열었다. 현재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8명이 일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ksc1@

효성이 설립한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이 지난해 10월 오픈 이후 구매고객 1만명을 돌파해 모든 구매고객에게 음료를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를 17일까지 진행한다. /효성 제공

클릭 품은 기본, 지자체 정보도 꼼꼼 체크를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노하우

교육으로 기회 모색 헤드헌팅 적극 활용

'내가 과연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외환위기(IMF)에 버금가는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이같은 걱정을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수십 년의 경력이 있어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략만 제대로 세운다면 새로운 기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 전략을 살펴본다.

◆클릭품은 기본

재취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층이라면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채용포털들과는 달리 장년층 대상의 채용정보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고령자를 우대하는 채용정보는 물론 근무일수와 요일·시간 등을 선택해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장년 고용뉴스를 따로 챙겨볼 수 있으며 준고령자직업선호도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면접요령과 적절한 직업을 소개해주는 성실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www.smjob.or.kr)도 유용하다. 40세 이상의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다.

◆지자체를 활용하라

지방시 지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유용하다. 서울시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연2회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노인취업훈련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새로운 인생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재취업 정보는 물론 사회공헌 아카데미, 시니어협동조합, 신노년단체 설립 등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인맥 관리도 중요

인맥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 누군가를 사귀는 것보다 지금까지 일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헤드헌팅 업체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단순히 이력서만 e메일로 전달하기보다는 서너 명 정도의 헤드헌터를 직접 만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자신의 장점을 미리 정리해 설명한다면 재취업에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교육으로 기회 넓혀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 2막을 여는 방법도 있다.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다면 방과 후 지도교사에 도전할만하다. 서울교대·부산교대·한국디지털캠퍼스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교육지원청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등에 지원하면 방과 후 선생님으로 활동할 수 있다.

미술에 취미가 있다면 국립현대미술관·영은미술관 등의 도슨트양성프로그램이 유용하다. 도슨트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활동하는 전시 해설가다.

기업 경영이나 컨설팅에 관심이 있는 장년층을 위한 경영지도사나 지도기술사 자격증도 있다.

이형종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략적인 라이프 커리어를 설정해 장기적인 고용 가능성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40세가 되기 전부터 관심 있는 분야에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퇴직 이후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인격·스펙비하에 반말까지

구직자 72% "면접에서 불쾌한 경험"

구직자 10명 중 7명은 면접에서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직자의 절반이상이 해당 기업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입사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13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 906명에게 면접 진행 중 불쾌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72.1%가 '있다'고 답했다.

불쾌했던 부분으로는 인격·스펙 등 비하 질문(36.7%,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성의 없이 짧은 면접시간(34.6%), 들러리 취급(31.5%), 반말 등 면접관의 말투(29.2%), 지원서 정보 모름(25.4%), 나이, 성별에 따른 차별성 질문(22.8%), 답이 없는 난처한 질문(22.1%), 바르지 않는 등 면접관 자세(21.9%) 등을 꼽은 구직자도 많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62.8%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복수응답)했다고 답했다. 더욱 성의있게 행동(18.4%), 티를 내며 건성으로 행동(10%), 대답 회피(9.6%), 이의 제기(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불쾌감이 해당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58.7%가 '매우 나빠졌다'고 답했다. '다소 나빠졌다'는 38.7%, '영향 없었다'는 2.6%에 불과했다. 불쾌감을 느낀 기업에 최종 합격할 경우 입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51.8%가 '없다'고 답했다. /이국명기자

남성도 메이크업 시대 1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2014희망일자리 강소기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남성 구직자들이 메이크업 컨설팅을 받고 있다. /뉴시스

DSLR·아이패드 미니 쏜다

잡코리아 앱 1000만 기념

잡코리아가 애플리케이션 누적 내려받기 1000만 건 돌파를 기념해 감사 이벤트를 마련한다.

잡코리아는 다음달 5일까지 '천만다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앱 로그인 이벤트'와 '천만 축하 댓글 이벤트' 두 가지 방식이다.

'앱 로그인 이벤트'는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16개 앱 중 로그인 가능한 10개 앱으로 응모할 수 있다. 앱에 로그인 하고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만 누르면 된다.

매일 1회씩 응모가 가능하며 많은 앱에서 로그인 할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진다. 추첨을 통해 캐논 EOS 100D 화이트, 아이패드 미니2 등을 경품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천만 축하 댓글 이벤트'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친구를 태깅해 천만 축하 댓글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이다. 당첨될 경우 태깅된 친구 수만큼 메가박스 티켓을 증정한다. /이국명기자

서승희 기자의 두잡 체험기

가죽공예 ⑦

부테로 클러치백 완성

이번 시간에는 올 봄·여름 시즌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꼽히는 클러치백에 도전했다. 클러치백은 끈 없이 손에 쥘 수 있도록 디자인된 백을 통칭하는 것.

가죽은 최고급 베지터블안 부테로(BUTTERO)를 쓰기로 했다. 부테로는 소가죽의 어깨와 등에 해당하는 부위로 소의 힘줄과 주름이 그대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미로 아르테 강사는 "가죽 품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유분기다. 유분이 많은 가죽 일수록 고급스러운 광택이 나고, 촉감도 좋다"고 말했다.

망치 등 가죽 공예에 필요한 도구를 넣고 다니는 수강생의 소품 가방을 참고해 클러치백 패턴을 만든다. 필자는 본인의 생활 패턴을 반영해 폭도 넓히고, 높이도 키웠다.

복잡할 것 같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클러치백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다. 이전에 완성했던 명함케이스에 크기, 소재 등 약간의 변형만 가했기 때문이다.

서울 신교동의 미로아르테에서 기자가 완성한 클러치백과 패턴. /서승희 기자

익숙함을 무기로 패턴 완성, 재단, 그리프 작업을 일사천리로 해낸다. 바느질 하는 도중에 바늘이 끊어졌다. 새 바늘에 실을 다시 연결시킨다.

이제 마감 작업이다. 수성 마감제인 토코놀을 발랐다. 토코놀은 아크릴 수지계인 기리메에 비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과정이 멋스럽고 보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진짜 마무리다. 완성한 클러치백에 특별한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강사에게 바늘이 두 동강이 날 정도로 바느질을 열심히 했던 오늘 날짜를 기록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강사는 공방 한편에 놓여진 프랭클린 불박기로 이동한다. 이 기계는 제품에 이니셜, 영문문구, 숫자 등을 새길 때 쓴다.

날짜가 적힌 클러치백을 본다. 에르메스 버킨백에 대해 썼던 8주 전을 시작으로 2달 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소설가 박완서는 "돈으로 소비하는 것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 여행"이라고 말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난 여행은 아니었지만 지난 두달은 필자에게 가죽 세계를 접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거다. /sh@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호평

KOTRA,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서 개최
각국 로컬푸드를 한 곳에 - 그린마켓 인기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3대 식품산업전문 전시회인 '201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SEOUL FOOD 2014)'이 13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막됐다.

16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는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며 국내·외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KOTRA(사장 오영호)가 주최했다. '로컬식품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지역 및 국내 소비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전 세계 다양한 로컬식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식품산업 종사자만을 위해 진행됐던 지난 전시회들과 달리 식품산업의 전반을 아우르는 식품 트렌드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 참여공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KOTRA 제공

◆풍성한 먹거리 '그린마켓'

일반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필요한 식품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그린마켓'은 식품업계 식품 분야 소상공인이나 농축수산물과 지역 특산물 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어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참관 및 구매가 가능하다.

그린마켓에서는 다양한 이색상품들이 전시되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비케이바이오는 두부의 주원료인 콩단백을 가공한 두부 페이퍼를 선보였다. 두부 샐러드는 물론 다양한 재료와 함께 싸먹는 라이스페이퍼 대용 활용할 수 있어 건강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업회사법인 수버지엔은 물만 붓고 발효시키면 막걸리가 되는 분말 형태의 '술씨'를 전시하며 해외 바이어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모았다.

◆볼거리 가득, 특별 전시관 구성

2014년도 식품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시관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참관객에게 글로벌 식음료 트렌드 및 신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식품 동향 및 신제품 홍보관'을 비롯해 지난 13일 발표된 'Seoul Food Awards' 수상작도 특별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음식과 식기류를 오브제로 하는 문화·예술전시 이벤트인 'FOOD & ART'전도 16일까지 진행된다.

◆서울국제조리학교&학원전

또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2014 서울국제조리학교&학원전'도 15일까지 열린다.

'SEOUL CULINARY 2014'는 셰프, 외식경영인·식품 조리분야 마케터 등의 진솔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서울컬리너리 드림토크쇼'를 비롯해 '쿠킹콘서트'를 통해 셰프들의 화려한 요리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다. 멕시코, 루마니아·태국 대사관과 이스탄불 문화원이 참여해 각국의 요리를 만들어보는 체험행사 '1day class'도 진행된다. 전국 고교 및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2014 서울국제외식조리경연대회'도 함께 개최된다.

또 볼거리뿐만 아니라 유익함을 더하기 위해 취업전문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와 연계해 식품·조리 분야 진로를 고려하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컨설팅'을 14~15일 이틀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seoulfoo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식품업계 '낮추거나 빼거나…'

덜 기름지게·짜게, 지방도 줄이기 경쟁

식품들이 자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열량이나 나트륨, 지방 등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낮추거나 빼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식품 브랜드 레퓨레는 단순히 소금 사용량을 줄인 일반 저염 장류와는 달리 염도 자체가 낮은 소금을 적게 사용해 어린아이들도 먹기 좋은 덜 짠 재래식 '순수 된장'과 '순수 간장'을 선보였다.

이 제품에는 미네랄이 풍부한 국산 천일염에 키토산을 결합시킨 기능성 저염소금인 '리염'을 사용했고 수입산 콩이나 탈지대두분말을 사용한 것과 달리 100% 국산 콩만으로 만들었다. 방부제나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항균력이 높은 키토산을 활용해 소금을 덜 사용해 부패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농심 켈로그가 출시한 '스페셜K 라이트 칩'은 1회 제공량(감자칩 21개·23g)의 열량이 93㎉밖에 되지 않는 감자칩 제품이다.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일반적인 감자칩과 달리 칼로리가 적어 날씬노소는 물론 몸매 관리 중인 여성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바삭하게 구워낸 감자칩에 맛있는 양념을 더해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영유아식품 전문 업체 베베쿡이 출시한 '처음 먹는 어린이 김'은 소금 대신 발효간장을 사용해 짜지 않게 만들었다.

보통 어린이용 조미김이 소금을 적게 사용해 나트륨 함량을 낮춘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염도가 낮은 전통방식으로 발효시킨 분말형 간장을 사용해 짠조름하고 고소한 맛을 구현했다. 국산 참기름과 현미유를 사용했고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해조칼슘을 첨가해 맛과 영양을 높였다.

CJ제일제당의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운 '더(THE) 건강한 어묵 2종' 제품은 어묵을 오븐에 구워 지방함량과 열량을 줄였다.

어묵 시장에서 판매량이 높은 3가지 제품의 평균 지방함량은 100g당 3.7g이고 열량은 160㎉다. 더 건강한 어묵은 이보다 지방 30%, 열량 20%를 줄였다. 합성착향료 가공도 없다.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4가지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 고급 원살생선을 사용해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삼립식품이 출시한 브랜드 '테이블에잇(Table 8)' 식빵은 설탕을 넣지 않고 천연원료인 포도 농축액을 사용해 만든 것이 특징이다.

/정영일기자 jung@metroseoul.co.kr

편의점 '와인', 야외 활동 늘자 판매 35%↑

소용량 와인 '큰손'은 20대 … 전체 36.2% 차지

기온이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에서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소용량 와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이 지난 2012년에 출시한 '옐로우테일 미니와인 187㎖ 세트'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5월 중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2% 늘었다. 이는 전체 와인 신장률(17.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소용량 와인은 20대 젊은 고객들이 주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일반 와인 매출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에 불과했다. 하지만 소용량 와인 '옐로우테일 미니와인 세트'의 20대 매출 구성비는 36.2%로 전체보다 15.6% 포인트나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구매 비중이 15.7%로 일반 와인(6.3%)보다 3배가량 높은 구매력을 보이며 소용량 와인 시장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세븐일레븐은 컵 형태의 캘리포니아산 와인인 '스택와인 카리스마'(사진)를 이달 새롭게 출시했다. 이 제품은 항아리 모양의 컵와인(187㎖) 4개로 구성돼 있어 와인 잔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어 집이나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컵와인 출시와 함께 기존 와인의 양(750㎖)을 반으로 줄인 '하프 와인'도 선보였다.

일명 '골프와인'으로 불리며 지인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레드와인 '1865 까베르네쇼비뇽 음 미니화한 '1865 까베르네쇼비뇽 375㎖'와 화이트 와인 '가또네그로소비뇽블랑 375㎖' 2종이다.

/정영일기자

인터넷쇼핑, 2023년 대형마트 역전

마케팅보다 브랜딩 우선

인터넷쇼핑이 2023년이면 대형마트 매출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면서 인터넷 쇼핑몰들도 '싼 가격 홍보'보다는 '브랜드 가치 생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인터넷쇼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쇼핑 매출액은 2023년 50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쇼핑 판매액은 2012년 기준으로 32조3470억원으로 전체 소매업 판매액의 9.26%에 달하고 있다.

이미 백화점(29조원)과 전통시장(20조원)의 매출 규모를 뛰어 넘었다. 대형마트(44조원) 슈퍼마켓(34조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합리적 소비성향의 확산 ▲대형마트 영업규제 및 유통채널의 발달 ▲모바일쇼핑시장의 가세 등으로 2023년에는 인터넷쇼핑 매출액이 49조원에 이르러 소매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컨설팅 전문기업 블랙코어는 인터넷쇼핑몰은 초기 창업비용이 저렴하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특징 때문에 인터넷쇼핑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신우 대표는 "일회성 이벤트나 최저가 경쟁보다 쇼핑몰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올 여름 잇 아이템, 나를 빛낼 '메탈릭' 패션 '주목'

신발부터 가방까지…심플한 디자인에 반짝이는 포인트 연출

올 여름은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등 굵지막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다양한 행사 및 프로모션을 준비중이다.

무더운 날 각종 행사를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 활동성이 좋고 화려한 스타일의 패션 아이템을 챙겨보는 것도 좋다.

이번 시즌에는 골드, 실버 계통의 메탈 컬러와 반짝이는 아이템이 강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자려 입기보다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귀띔했다.

특히 여름 장마에는 옷보다 신발을 선택할 때 더 신경써야 한다. 물에 젖지 않으면서 편한 착용감이 돋보이는 샌들류나 핏플랍의 '스키니 리자드'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 주목받고 있다.

이 신발은 신었을 때 발등을 매혹적으로 돋보여주며 4cm 히든 굽이 내장돼 있어 날씬한 다리 라인을 연출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금속의 화려한 느낌이 더해져 캐주얼한 차림부터 여성스러운 차림까지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최근 착용하기 편하고 가벼운 미니백이 여성들에게 환영 받고 있다. 간편한 차림새에 어울릴 만한 가방을 찾는 여성들은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니백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브루노말리의 죠이힐로 미니백은 세련된 컬러 배합과 '글로시 브루노 레더' 가죽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살려 여름철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클러치, 숄더·크로스 백 등 변형이 가능해 야외 활동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회사에서 선보인 벡럭은 여름철 메탈릭 스타일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핸들 위치를 변경해 토트나 숄더 등 상황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게 특징이라 바캉스뿐은 물론 일상에서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다.

게지스액세서리는 컬링 체인과 금속 체인이 어우러진 미니 컬링백을 선보였다. 이 가방은 깜찍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연출 할 때 좋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토트 또는 크로스백으로도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선글라스는 여름철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이다. 이번 여름 시즌에는 연예인들이 공항 패션으로 선보인 미러 선글라스가 사랑받을 전망이다.

패션 업계에 메탈릭 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이와 어울리는 미러 선글라스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브레아키 더 올드가 출시한 선글라스는 심플한 디자인에 무게가 가벼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나들이철 유아용품 챙기자

미아방지 가방·포장이유식·휴대용 소변기 등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이 부는 요즘, 어린 자녀와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 마 할 여행이지만 이것저것 챙길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먼저 나들이로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자칫하면 아이를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 아이들은 새로운 곳에 가면 호기심이 많아 이기 저기 뛰어다니기 때문에 아이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힘들다면 아이와 부모를 연결해주는 미아방지가방(사진)을 활용하면 좋다.

나들이 때 아이의 식사 해결 방법으로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남두베이비'는 한 끼 분량으로 포장된 이유식을 내놨다.

야외에서 아이의 소변 해결을 위해 휴대용 소변기를 챙기면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아이의 긴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코코키즈 휴대용소변기는 크기가 작아 휴대가 간편하며 샐 위험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 가능해 나들이 시즌 엄마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정영일기자

점보 랍스터와 대게 홈플러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반 상품 2배 이상 크기의 점보 사이즈 랍스터와 대게를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오란씨, 에일리 모델 발탁

오란씨가 옷을 입고 돌아왔다.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는 최근 가수 에일리를 오란씨의 새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젊음을 강조한 신규 TV광고를 공개했다.

오란씨는 비타민C가 함유된 플레이버 음료다.

/황재용기자

초여름에 좋은 산들 통배고

산들건강(www.sandle.co.kr)이 5월 말까지 산들 통배고 모든 제품을 40%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체질과 연령대에 따라 고객이 자기 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돕는다. 문의 본사 02)778-4568·강남점 02)595-7767·강북점 070)4265-5900

/황재용기자

몸매 '딱' 잡는 레깅스·팬츠 '인기'

탄력 힙, 뒤태 완성 도움

여름을 앞두고 옷차림이 가벼워질 여성들은 몸매 관리에 걱정이 앞선다. 두껍고 긴 옷자락에 가려졌던 살들이 여름이 되면 짧고 얇아진 옷 사이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상체보다는 하체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업계에서는 여성들의 몸매를 잡아주는 여름철 옷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어 이목을 끈다.

패션그룹형지(대표 최병오)가 전개하는 여성복 브랜드 샤트렌은 대다수 여성이 여름시즌에 앞서 다이어트에 몰입하는 점을 착안해 다이어트 핏 레깅스를 선보였다.

회사는 자체 연구개발(R&D)센터의 고객체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40여성 대부분이 상체 대비 하체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레깅스는 허벅지와 힙라인을 단단히 잡아줘 보디라인을 슬림하게 표현하고 스트레치 기능이 뛰어난 원단을 사용해 편한 착용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레노마 스포츠(대표 김정수)에서도 여성의 하체를 잡아주는 골프 바지 에플퀸 리프팅 팬츠를 최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여성의 엉덩이를 사과처럼 동그랗고 탄력 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하체를 잡아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까다로운 여성 소비자를 잡기 위해 디테일에 신경 쓴 것이 특징이다. 백 포켓이 엉덩이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 힙업 효과와 다리가 길어 보이는 착시효과를 얻을 수 있다. 허리 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입체 패턴은 볼륨감 있는 엉덩이를 만들어 주고 스티치 장식을 사용해 날씬한 뒷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골프웨어지만 통풍성과 스트레치성이 우수해 스포츠 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학철기자

외모 가꾸는 '그루밍 테크' 제품 '인기'

전동 기기로 깔끔한 남성 관리 가능

자신을 꾸미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외모를 가꾸는 남성인 '그루밍족'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들처럼 피부과나 미용실, 에스테틱을 이용하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남성들을 위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외모를 관리할 수 있는 전동 기기인 '그루밍 테크'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각질·블랙헤드 제거 전동 클렌저

최근 손으로 세안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는 전동 클렌저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클라리소닉은 전동 클렌저를 사용하는 남성들을 위해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비오템 옴므와 함께 남성용 '모이스춰라이징 킷'을 출시했다. 이 키트에는 클라리소닉 미아2와 비오템 옴므의 수분제품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미아2는 휴대하기 편한 얼굴 전용 컴팩트형 전동 클렌저로 메이크업 잔여물, 각질, 블랙헤드를 말끔히 청소해주고 스킨케어 제품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다.

◆수염부터 구레나룻과 정리까지

전동 면도기는 수염을 정리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이를 이용해 수염 스타일을 연출하고 구레나룻과 뒷머리 정리까지 할 수 있다.

쉬크 '하이드로 그루머'(사진)는 플립 트리머를 이용해 코 밑, 구레나룻과 같이 구석진 부위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전동 트리머와 탈부착이 가능한 빗을 이용해 구레나룻과 뒷머리의 지저분한 부분을 길이별로 조절하며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 모이스춰라이징 젤박스에는 수딩 알로에 베라, 비타민 E를 함유한 보습젤이 내장 돼있어 물이 닿은 즉시 고체상태 젤이 액체로 변하면서 면도하는 내내 피부가 촉촉해지도록 도와준다.

◆코털 정리로 에티켓까지 챙겨

외모 관리의 기본은 삐져나온 코털 정리 등을 통해 청결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코털 정리기로 남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파나소닉 'ER-GN30'은 코털과 잔털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립감을 고려한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해 손에 꼭 감기고 작동이 간편한 스위치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칼날 끝으로 세밀하게 절삭할 수 있어 코 입구 주위의 코털만 정리를 해주고 '듀얼 엣지 블레이드' 기술로 날이 피부에 닿지 않으면서 코털 제거가 가능하다.

/정혜인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박준뷰티랩, 기프트카드 증정

할인·무료 커트·클리닉 등 다양

박준뷰티랩이 감사의 달 5월을 맞아해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현장에서 바로 할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마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벤트는 박준뷰티랩에서 헤어 시술을 받은 고객이 대상이다. 박준뷰티랩은 5월 한 달간 헤어 시술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기프트카드를 증정한다.

이 기프트카드는 고객 본인은 물론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이너는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고객은 함께 머리를 하고 싶은 친구에게 기프트카드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프트카드에는 헤어시술권 앞에 빈칸이 있는데 이 칸에 매장 또는 디자이너에 따라 할인·커트 무료시술권·클리닉 등 다양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박준뷰티랩의 여러 지점을 방문하며 색다른 기프트카드를 받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준뷰티랩 블로그(http://blog.naver.com/pai_parkjun/701903123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인기자

해충 쫓는 티셔츠 13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해충을 쫓는 안티버그 티셔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 티셔츠는 해충들이 기피하는 소재를 사용해 세탁을 하더라도 이 기능이 살아있어 야외활동에 적합하다. 이마트는 긴소매 티셔츠는 물론 반소매 티셔츠, 아동용 속옷까지 다양하게 기획해 판매한다. 가격은 티셔츠류는 1만5900~2만5900원이며, 아동용 속옷은 4900~8900원이다. /이마트 제공

피부과 시술 애프터케어법이 효과 만점

회복 및 보습때는 특화된 화장품 사용 중요

자외선 강도가 높아지고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맑고 환한 피부를 위해 피부과 레이저 시술을 받는 사람이 많다.

시술 후에는 피부의 빠른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외선 차단 및 재생, 보습 등 애프터케어를 병행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피부 재생 위해 전문화장품 사용

레이저 시술은 의도적으로 피부를 손상시켜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피부 각질층 일부가 손상되어 홍조 및 가려움증, 건조증이 유발된다. 피부재생을 돕는 크림은 수시로 발라 회복속도를 높이고 수분크림을 평소보다 충분히 발라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경의 어드를 트러블 전문브랜드 에이솔루션의 리뉴얼 PPS 크림(사진)은 피부과 레이저 시술 후 자극 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회복에 도움을 주는 리스토어링 재생크림이다. 이경의 독자 개발성분이 피부과 피부개선을 촉진하고 상처 치유에 효과적인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이 함유돼 있어 약해진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준다.

◆자외선 차단제 필수

레이저 시술을 받은 피부는 각질층이 벗겨져 나간 상태라 햇볕에 노출될 경우 피부에 침투되는 자외선 양이 평소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피부 속 색소가 짙어질 수 있다. 외출 시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2~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마나 광대처럼 튀어나온 곳, 자외선에 바로 노출되는 눈 밑, 광대뼈에는 더욱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

시술 후 피부는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이므로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세안은 두드리듯 가볍게 하고 수건으로 살짝 물기만 제거해준다. 또 딱지나 각질은 일부러 뜯으면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탈락시키는 것이 좋으며 손에 묻은 세균으로 인해 시술 부위가 덧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과일이나 채소로 만든 천연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성 성분이 자칫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정혜인 기자

봄 나들이, "진드기 조심 하세요"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지만 최근 살인 진드기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나들이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진드기가 일으키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조심해야 한다.

SFTS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잔디나 숲속에 서식하는 '작은소참진드기' 등에 의해 매개된다. SFTS에 걸리면 6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피로감,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또 두통이나 호흡기 질환, 출혈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SF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 옷 등으로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나 목욕을 해야 한다. 또 잔디나 숲속에서 사용한 돗자리나 텐트 등은 사용 후 꼭 햇볕에 말려야 한다.

최의정(사진)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FTS의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법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영화 '표적'서 비리 경찰로 변신한 유준상

국민 남편의 반전

배우 유준상(45)은 영화 '표적'에서 청부 살인을 일삼는 비리 경찰 송반장 역으로 올 상반기 최고 반전남에 등극했다. KBS2 주말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 속 국민 남편의 변신이 관객에게 충격을 줬다.

지난 12일 만난 유준상은 악덕 비리 경찰과는 전혀 다른 유쾌한 사람이었다. 인터뷰 내내 열정과 긍정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꺼냈다. 연기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그는 작곡 실력까지 갖춘 만능 배우다.

◆ 송 반장, 죄책감 없어 더 무서운 인물

유준상은 '표적'의 송 반장 역을 수 차례 거절했다. 중반부터 본색을 드러내 영화 말미까지 등장하는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나 계속된 요구에 시나리오를 다시 읽었고 결정적인 한 장면때문에 출연을 결정했다.

"김성령의 머리에 총을 쏘는 장면이다. 그것은 악역을 장황한 말로 설명하지 않고 내 존재감을 한번에 드러냈다. 이걸 잘 살리면 관객들이 많이 놀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준상의 출연배경이다.

송 반장은 푸근한 미소를 머금고 악행을 하는 독특한 캐릭터다. "죄책감이 없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진다"고 했다. 작은 행동부터 대사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화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자식을 가진 아빠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고를 보면서 저 역시 경악했다. '표적'의 악천을 보면서 관객들은 악의 무리가 추락하는 걸 통해 통쾌함을 느끼는 것 같다."

영화는 14일 개막하는 칸국제영화제에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올랐다. 이로써 유준상은 영화 '하하하'(2010), '북촌방향'(2011), '다른 나라에서'(2012)에 이어 네 번째로 칸을 방문한다.

그는 "프랑스 영화 '포인트 블랭크'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여기에 작품의 주제의식, 출연 배우들의 연기력이 심사위원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다"며 "영화를 보면서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표적'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흥행, 현실 상황과 맞물려 버스킹하러 북유럽 간다

송 반장의 많은 부분은 유준상과 윤홍승 감독의 합작품이다.

"각본 짜는 행사로 병행을 잡았다. 송 반장이 처음 등장할 때 수첩에 그림을 그려서 김성령에게 주는 장면도 감독님에게 제가 먼저 제안한 거죠. 다행히 관객들도 웃어서 좋았어요. 친구를 죽이기 전 그의 머뭇거리는 말투를 보고 내뱉은 말도 다 애드리브다. 송 반장 무리들과 함께 한 장면에서도 많은 부분이 생활형 애드리브로 채웠다."

◆ '표적' 들고 네 번째 칸영화제

'표적'은 개봉 2주째에 총 관객수 210만 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흥행하고 있다. 유준상은 현실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송 반

◆ 뮤지컬 배우부터 작곡까지

"무대 위는 전쟁터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보여줘야 하고 오늘 잘했다고 내일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곳이다. 매일 훈련을 한다.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니까 영화, 드라마, 어느 분야에서든 제 몫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지난해 데뷔 앨범 '준스 룩'을 발표한 그는 "음악을 하는 것도 연기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준화라고 미국 LA에서 기타치는 친구와 '제이앤조이20'이라는 그룹을 결성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스무 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은 북유럽으로 여행을 떠나 버스킹을 하면서 연주 곡을 만들 예정이다. "음 가슴에 열정을 내려고한다. 연주 곡과 함께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젊은 감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는 "지금 메트로 신문을 읽고 있는 저와 동년배거나 더 나이가 드신 분들 열정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분노는 '표적'을 보면서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효진기자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 디자인/최송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홈페이지 화면

연매협 수억원대 횡령혐의 포착

한국 연예계의 주요 매니지먼트사들이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최근 내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13일 연예계에 따르면 연매협은 3월 외부회계법인에 회계 감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 직원에 의한 심각한 횡령 및 배임 의혹을 발견했다. 이번 감사는 2007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직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횡령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매협은 7년 만에 처음 회계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전시, 진주시 등으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각종 행사를 벌여왔기 때문이다.

연매협은 13일 정기 이사회에서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매협은 2005년 이른바 '연예계 X파일' 사건 이후 결성돼 2007년 5월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했다. 나무엑터스, 키이스트, 판타지오, IHQ 등 200개 이상의 매니지먼트사가 소속돼 있다.

/탁진현기자 tak0427@

"모태솔로 사랑 지켜보세요"

박세영 '기분 좋은 날'서 최고 커플 자신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의 세 커플이 틴지의 물러섬 없는 사랑 대결을 예고했다.

이상우는 13일 경기 고양시 SBS 일산 제작센터에서 열린 '기분 좋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순수하고 가장 나이가 어린 커플"이라며 "싱그러운 나이는 아닌데 싱그럽다"고 박세영과의 사랑을 소개했다. 이에 박세영은 "정다정은 모태솔로여서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재미있게 봐달라"고 답했다.

극중 이상우와 박세영이 맡은 서재우와 정다정 역은 연애에 대해서 큰 관심 없었던 인물이다. 현재 두 사람은 순수 커플이란 애칭으로 시청자의 연애 세포를 자극하고 있다.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 박세영 이상우 /SBS 제공

그거 커플 로 큰 웃음을 선사했던 김미숙과 손창민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20년 전 이혼해 세 딸을 혼자 키운 무명 작가인 한송정 역의 김미숙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는 한송정과 남궁영이 어떻게 사랑으로 발전할지는 정말 모르겠다"며 "오늘(13일) 8회 촬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만난 남궁민이라면 호평을 준다고 해도 싶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손창민의 반격도 상당했다. 그는 "마찬가지다. 한송정의 매력을 전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도 "김미숙과는 환상의 커플이다. '기분 좋은 날'의 주인공은 우리다"라며 향후 두 사람의 관계 발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내가 사기꾼이면 넌 그거 야"라는 대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남궁영의 호방에서 무허가로 책 사인회를 하게 된 한송정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남궁영에게 던진 말로, 이후 이들은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하는 중년 커플로 현연 중이다.

황우슬혜와 정만식은 미녀와 야수 커플로 등장한다. 황우슬혜는 이날 "어릴 남에 어든하지 있는 남자인 강현빈과 연인이다. 반드시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에 정만식은 "동생남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며 "자세히 보면 귀여운 외모다. 사람은 왜 이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연기 중이다"라고 답했다.

'기분 좋은 날'은 사랑과 결혼, 가족의 참된 의미를 모색하자는 취지의 드라마로 막장과 불륜, 출생의 비밀이 없는 착한 작품을 표방한다.

김미숙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기적이라고 한다. 그 기적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한다"고 드라마 향후 전개를 기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효진기자 leonh131@metroseoul.co.kr

인피니트 초대형 아시아 컴백쇼

일본·대만·한국서 개최

인피니트가 초대형 쇼케이스로 봄 가요계 컴백 열풍 속에 차별화를 시도한다.

정규 2집 '시즌 2'를 발매하는 인피니트는 19일 일본, 20일 대만, 21일 한국에서 차례대로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이번 쇼케이스는 지난해 월드투어를 진행하며 K-팝 대표 그룹으로 등극한 인피니트가 해외 팬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음악적 교감을 나누겠다는 의도로 기획됐다.

쇼케이스의 이름은 '1 2 3'으로 '다신 없을 단 한번의 기회', '두 번째 정규앨범', '3일간 아시아 3개국에서 펼쳐지는 쇼케이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앨범 '데스티니' 이후 10개월 만이며 정규 앨범으로는 3년 만에 발표하는 앨범이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시아 팬들을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쇼케이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쇼케이스의 마지막인 국내 무대는 21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5000석 규모로 진행된다.

/장소초기자 sune@

방송사 줄잇는 참사 보도 반성

MBC·KBS 기자들 자성…사장 퇴진 요구까지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오전 MBC 기자회 소속 30기 이하 121명의 기자 일동은 보도국 뉴스게시판과 사내 자유발언대를 통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제목으로 "비이성적, 비상식적인 것은 물론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보도였다. 현미디트 보도 참사였다.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다. 가슴을 치며 머리 숙인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개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박상후 전국부장이 보도한 '분노와 슬픔 넘어서'의 내용을 지적한 것이었다. 박 부장은 이 리포트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조급증 환자에 비유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MBC 기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MBC가 언론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KBS 기자협회는 13일 세월호 참울 사고 보도 통제에 맞서 길환영 사장과 임창건 보도국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KBS 기자협회는 지난 12일 긴급 총회를 열고 길 사장과 임 국장 퇴진 건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보도를 반성하는 미디어 프로그램 및 9시 뉴스 제작, KBS 뉴스의 정치적 독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의 결의안도 내놨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작거부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KBS 38~40기 기자들은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사내 망에 올렸다. 이들은 해당 글을 통해 "유가족들이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울부짖을 때 우리는 정부와 해경의 숫자만 받아 적었다"며 불공정 방송에 대한 사측의 공식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김지민기자 anabim@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감감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희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씩씩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커플매니저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현우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편들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모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이루어질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기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과학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이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행복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봐잘어요.

☎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중독 같은 사랑 그린 '인간중독'

film review

노출 수위 높지만 인물 감정에 중점 급작스럽게 마무리되는 결말 아쉬워

■인간중독

14일 개봉한 영화 '인간중독'은 제목처럼 중독 같은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줄거리는 1969년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아내가 있는 엘리트 군인 김진평(송승헌)이 군 관사에서 부하의 아내 종가흔(임지연)과 벌이는 비밀스럽고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다.

영화는 전체적인 줄거리만 놓고 보면 사랑과 전쟁 류의 뻔한 불륜 치정극에 가깝다.

각자 배우자가 있는 남녀주인공이 서로에게 빠지는 과정을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묘사한다. 노출과 정사신의 수위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 영화는 노출보다는 한 남자의 절절한 사랑에 방점을 둔다. 베트남전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출세를 위해 정략 결혼을 하고 살아가던 김진평이 뒤늦게 찾아온 강렬한 첫사랑으로 인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파멸로 치닫는 드라마가 두 시간여 동안 섬세한 영상으로 펼쳐진다.

'정사'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각본을 쓰고 '음란서생' '방자전' 등을 연출한 김대우 감독이 이번에도 고품격 '19금' 멜로를 표방했다.

김 감독은 진지함 속에서 특유의 풍자와 유머까지 계산 녹여냈다. 군 관사 내 부인들의 봉사 모임이자 사교장인 나이팅게일회를 등장시켜 남편의 지위에 따라 아내의 행동까지 달라지는 계급 사회를 무겁지 않게 묘사한다.

파격 멜로에 도전한 송승헌의 연기변신, 고혹적이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신예 임지연의 매력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섹시한 이미지가 강했던 조여정은 이번엔 남편 김진평을 장군으로 만들려는 야심이 있으면서도 유머러스한 면모까지 갖춘 이숙진을 열연해 극의 분위기를 살린다.

그러나 극이 진행될수록 깊어질 더해야 할 이 영화는 오히려 결말에 가까워지면서 힘을 잃는다. 출세와 사랑을 놓고 위태위태한 줄다리기를 하던 김진평과 그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던 종가흔의 감정이 급작스럽게 변해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청소년관람불가.

'피아노 거장'의 환상 협주 국내 무대

아시케나지 부자 27일 예술의전당 공연

'피아노의 거장'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사진)가 아들과 함께 국내에서 피아노 연주 무대를 연다.

손가락 손상으로 2007년부터 피아노 독주 무대서 은퇴한 후 지휘자로 활동 중인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는 아들 보브카 아시케나지와 함께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피아노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2011년 이후 3년 만의 내한공연이다.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는 절정의 테크닉과 음악 속 깊은 매력을 끄집어내는 표현력으로 폴리니, 아르헤리치와 함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솔로 연주 은퇴 후 시드니 심포니와 유럽연합 유스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지휘에 전념하며 독집과 듀오 음반을 발매했다.

보브카 아시케나지는 2005년 스타인웨이 125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에서 큰 호응을 얻은 이래로 공연과 레코딩을 이어오고 있다.

아시케나지 부자는 내한공연에서 슈베르트의 '헝가리풍의 디베르티멘토', 브람스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외에 러시아 음악인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한다. 두 피아니스트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모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은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금난새가 맡는다.

이번 공연은 오는 27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0일 오후 7시30분 금천 다락원, 31일 오후 7시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연다.

/박성준기자 ysw@

'케미'가 살아야 드라마가 산다

'호텔킹' '마녀의 연애' 연기·연출·극본 엇박자

사람 사이의 화학 반응을 뜻하는 일명 '케미(케미스트리)'가 좋은 드라마를 만드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케미'는 주로 남녀 주인공 사이의 성적 이끌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지만 사람 사이의 궁합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최근 MBC 주말극 '호텔킹'은 연출과 작가의 궁합이 맞지 않아 갑작스럽게 PD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호텔킹'의 연출을 맡았던 김대진 PD를 대신해 이상범(최병길) PD가 메가폰을 잡았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일신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조은정 작가와 김 PD의 불화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극 중반부에 접어들어 연출이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다.

'호텔킹'은 주연배우 이다해·이동욱(큰 사진)이 SBS 드라마 '마이걸' 이후로 9년 만에 재결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연 '호텔킹'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극 초반 주·조연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내용 전개는 시청자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 이는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연결됐다.

지난 11일 방영된 '호텔킹' 전국 평균 시청률은 10.6%(닐슨코리아 집계 이하 동일)로 경쟁 드라마 KBS1 '정도전'의 19.8%에 한참 뒤진 수치를 나타냈다. PD 교체라는 결단을 내린 '호텔킹'의 새 연출과 기존 작가가 '케미'를 통해 몇 실을 발휘할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제작진이 아닌 주연 배우들 간의 '케미'도 중요하다.

tvN 월화극 '마녀의 연애'(작은 사진)는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엄정화와 떠오르는 신예 박서준을 극중 14살 차이의 연상녀 연하남으로 캐스팅해 화제를 일으켰다. 앞서 방송된 JTBC 월화극 '밀회'의 김희애와 유아인이 실제 나이 19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잘 어울렸기에 엄정화·박서준의 만남도 시청자들의 기대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남자 주인공만 화제가 될 뿐 드라마 자체에 대한 인기는 예상만큼 뜨겁지 않다.

로맨틱 코미디는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흥행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이를 살리는 것은 연출과 배우의 몫이다. 하지만 '마녀의 연애'에선 캐릭터부터 극 전개까지 '케미'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직장에서 잘나가는 30대 후반 여기자인 반지연(엄정화)은 주요 시청층인 10~20대 여성 시청자들에게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또 남자 주인공 윤동하(박서준)가 지연에게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과정이 다소 성급했다. 이는 결국 남녀 주인공 사이 '케미' 부족으로 나타났고 당초 예상보다 심심한 드라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uage@

모녀, 친밀하고 잔인한 관계

엄마와 딸의 다양한 감정 다룬 심리소설

딸은 딸이다

애거사 크리스티/포레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흔치 않다. 하지만 크리스티가 추리소설이 아닌 작품을 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크리스티는 1930년부터 1956년까지 '메리 웨스트매콧'이라는 필명으로 여자의 삶과 사랑의 잔인함을 주제로 한 여섯 편의 소설을 썼다. 이 작품들을 통해 인간이자 여성으로서의 크리스티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메리 웨스트매콧의 다섯 번째 작품 '딸은 딸이다'는 젊어서 남편과 사별한 앤 프렌티스와 딸 세라가 겪는 혼돈과 그 과정 속에서의 심리를 다루고 있다.

앤은 세라가 여행을 떠난 사이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앤은 세라가 축복해줄 거라 믿고 조심스럽게 재혼 소식을 알리지만 세라의 맹렬한 반대로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포기하고 세라를 선택한다.

이후 앤은 끈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느끼는 불행한 여자로 변해 가고 딸에 대한 마음에도 급속히 냉기가 드리운다. 완전히 밀착됐던 모녀의 삶은 서로에 대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인해 점점 더 황폐해져간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두 모녀는 강하게 충돌하고 만다.

이 책은 모녀의 관계와 심리를 집요하게 분석해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얻으킨다. 모녀의 관계는 혈연관계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다. 가족 구성원 중 모녀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사이는 없다. 혈연이기 때문에 생기는 본능적인 정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으로서의 공감과 연대, 사랑과 연민을 느끼기 마련이고 친밀한 만큼 더 시기하고 원망하는 등 다양한 감정을 공유한다.

엄마라는 이유로, 딸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한 희생과 상처는 여성의 삶을 평생 따라다닌다. 결혼 후에는 완전히 독립하는 아들과 달리 딸은 평생 어머니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모녀는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든 평생 감정적으로 이어져있고 늘 서로를 사랑하고 연민하고 증오하고 이해한다. 그렇기에 딸은 영원히 딸이다.

/정혜은기자 hyun0404@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시작과 끝에서 다시 찾는 그 곳 제주

동안 위태를 걸심한 대학생 넷은 떠대 일주일 전 4박5일 일정의 제주 무전여행을 왔다. 이직을 결심한 서른 다섯의 남자는 1주일 동안 제주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자기를 결심한다. 50의 나이에 아직 혼자인 한 목수는 한 달간의 여름 휴가를 통해 배우자를 찾겠다고 한다.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제주는 떠나는 사람의 위시리스트가 된다. 저 끝의 초월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각자의 무엇을 위해서 제주는 뿐 같은 자리에 있다. 실재한 이들의 재기, 시작하는 이들의 결심을 위한 곳 제주다. – '내 마음의 제주'(이은주/알) 중 –

/김학철기자 kimc0049

새로 나온 책

역사

향신료의 지구사

프레드 차라/휴머니스트

독특한 맛과 향으로 요리에 풍미를 더해 세계를 사로잡았던 향신료. 향신료를 얻기 위해 항해술과 지도제작술이 발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둘러싸고 유럽 제국의 침략과 약탈이 일어나기도 했다. 책은 향신료의 이동이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면밀히 추적하며 음식을 통해 세계사를 분석했다. 생강, 마늘, 파 같은 한국 향신료의 역사를 세계사의 맥락과 연결시킨 특집글도 실려 있다.

정치 사회

나폴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스테디셀러

근대정치철학서로서의 군주론이 현대 민주주의의 실천에 갖는 함의를 탐구하고자 했다. 진보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서문에서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의 심오한 가치와 그 안에 들어있는 민주주의적·민중적 기초를 소개한다. 2부 군주론의 새로운 번역본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고 시대적 배경과 중요 개념에 대해 주석을 달았다.

자기계발

썸과 연애의 사이 　 허경갑/필굿북이이

여성을 위한 연애지침서인 이 책의 저자는 국내 1호 연애코치다. 그간 수많은 연애 지침서가 쏟아져 나왔지만 타이밍에 주목한 책은 드물었다. 연애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인데도 말이다. 모든 만남은 한 끗 차. 결정적인 한 끗 차가 우리를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저울질한다. 황금 타이밍 연출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경영 경제

매출 100배 카카오 마케팅

이광성 외/생각비행

요즘 SNS 계정 하나 없는 사람이 드물다. 그만큼 우리는 소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람 모으기 힘들다는 요즘, SNS를 통하면 늘 어디서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이 책은 카카오스토리, 스토리플러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만한 책이다.

소설

미국의 목가(전2권)

필립 로스/문학동네

이 책은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 필립 로스에게 퓰리처상의 영예를 안긴 대표작이다. 1960년대 말의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이 책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몰락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작가는 기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자신의 연생에서 제일 강렬했던 시절인 60년대의 격동을 잘 담아냈고 서른한 편의 작품 중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팍스아메리카의 위상에 도취돼 한껏 달아오른 미국의 취기가 베트남전쟁의 실패와 맞물리며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지는지를 예리하게 파헤쳐보인다.

현대선물 '투자 전략 세미나'

현대선물이 오는 17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데미 트레이딩&스윙 트레이딩 전략' 출간을 기념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책은 5개 국어로 번역서가 출간될 정도로 전 세계 외환 투자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책으로 저자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13년 동안 쌓아온 귀중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또 세미나에서는 책과 저자의 매매 전략이 소개되며 '외환 거래를 위한 팁&테크닉'이란 주제의 동영상 강의도 진행된다. 문의 02-788-7035

/홍재호기자

만화 '프랜차이즈 창업의 신'

대한민국 1등 외식기업들의 창업 성공 비법을 담은 책이 나와 화제다. 김승민(사진) 덕성여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가 '프랜차이즈 창업의 신(중앙 M&B)' 시리즈를 발간한 것이다.

책은 ▲금융만 김가네 회장 ▲김철호 본죽 대표 ▲정탄 지어스 대표 ▲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 등 우리나라 4대 프랜차이즈 대표 기업의 사업 비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또 창업자들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창업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핵심 노하우가 재미있는 만화에 녹아들어 있다.

/홍재호기자

내가 만든 효소가 약이 된다?

화제의 책

약이 되는 명품 효소

김시련/북로그컴퍼니

웰빙과 힐링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식품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효소. 그리고 23년 동안 효소 연구에만 매달린 산야초발효연구원의 효소 도사 김시련 원장.

그가 지난해에는 '달지 않은 명품 효소 만들기'로 대한민국의 잘못된 효소를 바로잡았다면 올해는 독자들을 위해 '약이 되는 명품 효소'를 소개한다.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딸기·귤·블루베리 등의 과일과 시금치·부추·방풍 등의 채소 생재료를 이용해서 말이다.

게다가 그는 민간요법에서 많이 쓰이는 벽작약·맥문동·상황버섯·하수오 등을 이용한 효소 만들기와 사골짱·쌍화탕·십전대보탕 등의 한약재로 만드는 효소를 통해 건강을 위한 최고의 효소 제조 비법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책에는 김 원장만의 비법인 천연 촉매제, 즉 배와 포도의 역할도 자세히 설명돼 있다.

설탕 함량이 너무 높고 끓여야 하는 시럽과 달리 배와 포도는 그 어떤 재료보다 다량의 효소를 함유한 과일인데다 효모가 많아 발린 재료의 발효를 촉진시키고 효소액도 쉽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효소 도사의 노하우가 담긴 레시피를 통해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가정에서 직접 챙기는 것은 어떨까.

/홍재호기자 hcoul89

'붉은 머리' 손흥민 이젠 '붉은 악마'

분데스리가 맹활약· 브라질월드컵 올인
'독일파' 구자철·홍정호·지동원도 합류

독일파 4인방'의 합류로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축구 대표팀이 본격적인 훈련 모드를 갖췄다.

지난 주말 독일 분데스리가 최종전을 마치고 12일 귀국한 손흥민(레버쿠젠) 구자철(마인츠) 홍정호 지동원(이상 아우크스부르크)은 13일 오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입소했다.

모두 짙은 정장 차림에 왼쪽 옷깃에 노란색 리본을 달고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한목소리로 월드컵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최종전에서 정규리그 10호골을 넣으며 두 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은 취재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4년을 뛸 정도로 경험이 쌓였다. 월드컵에서 후회 없는 플레이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만족할 만한 시즌을 보낸 그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월드컵 준비에 전념하겠다"고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외신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선수로 꼽은 것과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나 외신 보도일 뿐이고 대표팀에는 나보다 더 위력적인 선수가 많다"며 겸손하게 답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최종명단에서 탈락한 바 있는 구자철은 "아픔도 겪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많이 성장했다"며 "유럽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맞붙으면서 자신감이 붙었다"고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지동원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파주NFC에 입소해야 할지만 생각했다"고 했고, 홍정호도 "아직 큰 무대 경험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파 4명이 합류하면서 홍명보호는 소집인원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 본격적인 훈련 체제로 접어들었다.

◆ D-30 첫 원정 8강 도전

2014 브라질 월드컵(한국시간 6월 13~7월 14일) 개막이 14일로 D-30을 맞았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대표팀은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에 도전한다. 쉽지 않은 목표지만 4년 전보다 두 살이나 젊어지고 체격 조건도 괄심된 태극전사들은 역대 최다인 17명의 해외파(유럽 9명 아시아 8명) 선수들의 경쟁력을 앞세워 목표 달성을 노리고 있다.

H조에 포함된 한국(55위)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만 따지면 벨기에(12위) 러시아(18위) 알제리(25위)에 뒤지지만 특유의 강한 정신력과 기동력을 앞세워 새 역사 창조에 도전한다.

6월 18일 오전 7시 쿠이아바의 판타나우 아레나에서 러시아와 첫 경기를 치르고, 23일 오전 4시 포르투알레그리 베이라히우 스타디움에서 알제리와 조별리그 2차전을 벌인다. 마지막 상대인 벨기에와 27일 오전 5시 상파울루의 아레나 데 상파울루에서 맞붙는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2승1패 또는 1승2무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16강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대표팀 대표 색깔인 붉은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한 손흥민이 13일 파주 NFC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상문 "독한 야구 해보겠다"

LG 감독 취임 일성

양상문 LG 트윈스 신임 감독이 13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장 이진영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신임 양상문 감독이 취임식에서 독한 야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양상문 감독은 1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 감독 취임식에서 "팀을 추스려야 하지만 지금부터 내 색깔을 보여주겠다. 내가 추구하고 싶은 야구는 깨끗한 야구다. 그리고 점수 차이에 상관없이 이기든 지든 독하게 하는 야구다. LG에서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야구를 한번 해보겠다. 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감독은 '독한 야구'의 연장선상에서 당분간 선수가 휴런을 치더라도 세리머니에 동참하는 대신에 다음 작전을 짜겠다고 선언했다. 양 감독은 또 "그동안 외신상담하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성공한 감독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공부했다"며 "실망시키지 않는 팀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 시즌 초반 최하위로 처져 있는 LG의 전력에 대해서는 "3~4위 전력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선수단을 정신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성적 안좋은 것은 실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초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꼬였기 때문"이라며 "마음이 급해졌고 여러 일이 생겨 선수단이 갈 길을 잃어 최악의 상황이 왔다고 본다. 시간은 있고 희망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13일)

■잠실

팀				
롯데	000	000	000	0
LG	000	011	03X	5

■문학

팀				
두산	302	001	120	9
SK	002	021	100	6

■대구

팀				
한화	001	000	000	1
삼성	102	011	11X	7

■마산

팀				
KIA	200	000	030	5
NC	005	002	001	8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13일)

팀			
포항	1	0	전북

윤석민, 왕첸민 상대 2승 도전

메이저리그(MLB) 입성을 노리는 윤석민(28·볼티모어 오리올스·사진)이 대만 출신 왕첸민(34)과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볼티모어 산하 트리플A 팀인 노포크 타이즈는 13일 휴케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홈구장인 하버파크에서 열리는 루이스빌 배츠(신시내티 레즈 산하 트리플A 팀)전 선발 투수로 윤석민을 예고했다.

윤석민과 선발 맞대결을 벌일 루이빌 선발 투수는 왕첸민이다.

한때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팀인 뉴욕 양키스에서 19승(2006·2007시즌)을 거두며 아시아 투수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왕첸민은 전성기에는 조금 먼 구위를 보이며 어렵게 버티고 있다. 2008년 8승(2패)을 끝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왕첸민은 지난 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1승2패 평균자책점 7.67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올 시즌에는 마이너리그에서 2승4패 평균자책점 4.95를 기록 중이다. 재기를 위해 신시내티 유니폼으로 갈아 입었지만 아직 메이저리그의 부름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최근 1승을 올린 윤석민에게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윤석민은 지난 10일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산하 트리플A팀)전에서 5이닝 3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미국 진출 후 7경기 만에 맛본 미국 첫 승리다.

팀내 입지 구축과 메이저리그 입성을 노리고 있는 윤석민이 이번 경기에서 어떤 투구를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호기자 ppw@

박지성 QPR 복귀 초읽기

14일 기자회견서 표명

박지성(사진)이 원소속팀인 퀸스파크 레인저스(이하 QPR)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졌다.

QPR은 13일 영국 런던의 로프터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리그) 플레이오프 준결승 2차전에서 위건에 2-1로 승리했다. QPR은 1차전에서 0-0으로 비겨 1, 2차전 합계 2-1로 결승에 올랐다. QPR은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더비카운티에 승리할 경우 프리미어리그(1부 리그)로 승격한다.

박지성은 11일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거취와 관련해 "QPR의 플레이오프 결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플레이오프에서 잘 되면 QPR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QPR에서 2015년 6월까지 뛰기로 계약돼 있는 박지성은 앞서 전 토니 페르난데스 QPR 구단주와 만나 향후 거취를 놓고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QPR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다면 박지성이 복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 프로축구는 챔피언십 1·2위 팀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자동 승격하고 3~6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자가 나머지 한 장의 승격 티켓을 가져가도록 하는 승강제를 실시한다. QPR은 4위로 올 시즌을 마쳤다.

박지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와 결혼 일정에 대해 명확히 밝힌다. 이 자리에서 QPR 복귀가 아닌 현역 은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유순호기자

캣우먼

칼럼니스트

팀원이 나의 뒷담화하는데… 불러서 차분히 지적하세요

Q Hey 캣우먼!

저는 삼십대 후반 싱글 여자 직장인이고 회사에서 팀장입니다. 최근에 충격 받고 가슴이 먹먹해요. 제 팀원이 동료들과 채팅한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녀를 보며 나에 대한 이야기 또 저리 하겠구나 싶었지만 채팅으로 정말 저를 적나라하게 씹더군요. 이럴 때 그녀를 불러서 크게 한 번 화내면서 제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씹히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눈감고 있는 게 맞을지요. /계급장

A Hey 계급장!

그 팀원이 채팅한 내용을 보게끔 방치한 상태에서 우연히 보게 된 거라면 저라면 그 일에 대해 따로 불러 얘기하겠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얘기해놓고도 찜찜하고 더 어색해지지 않을까 신경 쓰겠지만 어차피 얘기 안 하면 안 한대로 확생해 억울하니 한 번 얘기해서 팀원은 숙청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화내지 말고 절제하며 말해주세요.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 그녀가 뒷담화를 계속 하더라도 이번 티가 안 나도록 조심할 겁니다. 둘째 사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다른 불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혹시 섭섭하게 한 적이 있으면 말해달라"며 마음을 열어 그녀의 다른 이야기를 들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적 친구도 아닌 회사동료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프로페셔널한 자세가 아닙니다. 조직의 선배로서 그런 행동의 경솔함에 대해서는 고쳐줘야 합니다.

팀장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뒷담화하는 것도 더불어 근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뒷담화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 개인의 좌절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팀원이 싫다고 사무 일거리는 간에 당신이 그녀와 엄연한 상관 상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 해서 손해 보는 것은 전적으로 그 팀원일 뿐입니다.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sa606.com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긍정적으로 순리에 따르도록

하루다름 여자 80년 4월 26일 양력 오전 6시 30분

Q 항상 원장님의 글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내성적이고 자신감도 없고 자신을 비하하는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재물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A 귀하는 구변이 청산유수와 같고 항상 분주합니다. 인생에 중요한 재물운과 관직운이 희망 쪽으로 가고 있으니 고민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성의 특장인 음(陰)이지만 내성이 유양(陽陽)하여 고집불통에 독선적인 마음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편관건재(偏官建財)의 특성은 하는 일의 변동이 많고 재물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여 이익이 되면 생의와 타협 할 수 있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 나이 50세까지는 항상 형(刑)을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이 라면 아무것이나 결단 하세요. 급시 발복할 일은 없으나 큰 것을 바라지 말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30대 중반인데 결혼은 언제쯤 2016년 성혼, 신부수업하세요

popohi 여자 78년 6월 18 양력 사시생

Q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동생은 몇 년 전에 선생님께 사주신참을 했는데요, 진짜로 선생님께서 말씀해신 해에 직업도 갖고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진짜로 신기하여 저희 가족 모두 놀랐구요." 언니인 저는 아직 인연도 못 만나 제게 과연 결혼운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A 동생분의 명조(사주구조)에 맞는 것을 일러드린 것이 그대로 적중하는 것에 대한 소감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2016년 배우자감이 나타나고 다음 해에 성혼을 이룰 수 있으므로 그때 까지는 신부 수업을 하듯이 조신히 지내야 합니다. 귀하는 구름에 가린 태양의 형상으로 마음속에는 무궁한 지혜가 모시기 있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단점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잘 처세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어찌 에는 순한 양과 같지만 한번 꽂기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입니다. 나경살(羅網殺)로 지나치면 실패와 구설수가 따릅니다. 건강 상 단장관(斷腸關)의 형국이 보이니 각별히 대장과 소장 질환을 유의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5/14 水 일출시각 05:24 일몰시각 19:3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제주, 강릉, 울릉도,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어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는 미역이나 해조류 등을 식사 전에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연세대학교 서울백병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4		
9					6		8	
	5	6						1
5			8		4			7
7	9						1	4
6			1		2			5
3						7	9	
	2		5					3
		7			1			

	8		6			9		1
	2			8	9			
6					4	5		
		4	9			2		
			4		5			
		6			8	4		
		3	5					2
			8	3			7	
8		5			1		6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펜사 스도쿠 리미티드 (아이클리오스 키워)

신점[神占] 운세 5월 14일(음 4월 16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귀는 열고 입은 이끼리. 60년생 숲 속에 묻힌 보석을 찾는 격이다. 72년생 대세 따르면 심신이 편안~ 84년생 작은 것에 연연하면 큰 것 놓친다.

소 49년생 오해이 거면 상처받는다. 61년생 동서 좋을 수만 없으나 마음 비워라. 73년생 지인 소개는 거래의 수금이 순조롭다. 85년생 어른들 말에 귀 기울여라.

호랑이 50년생 외출 땐 문단속 조심~ 62년생 자신을 알면 실적 없다. 74년생 예상 못은 희소식이 있으니 기대하라. 86년생 호감 가는 이성을 만나 가슴이 뛴다.

토끼 51년생 배우자의 배려가 고맙다. 63년생 도움 안 되는 감투는 버려라. 75년생 오랫동안 공들인 일은 성공한다. 87년생 견제하는 동료 의식 말고 마이웨이 할 것.

용 52년생 느낌이 좋을 때 움직여라. 64년생 서둘러 일 진행하면 허탕 친다. 76년생 좋은 일이 이름이 거론되어 으쓱~ 88년생 연인 의중 못 파악하면 뒤늦은 후회한다.

뱀 53년생 살에 활력소 될 일이 생긴다. 65년생 사소한 일에 사활 걸지 말라. 77년생 욕심 낼 일이 생겨 의욕이 넘친다. 89년생 꿈을 꾸는 그대는 아름다워~

말 42년생 못마땅해도 순리 따르라. 54년생 건넥지 말고 일단 해보면 된다. 66년생 운전으로 인한 말썽 조심하라. 78년생 작장인은 일에 밴 노하우는 결실을 맺는다.

양 43년생 건강과신은 위험하다. 55년생 외출 때 휴대폰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 67년생 어려울수록 강한 정신력 필요하다. 79년생 상사와 갈등은 유연하게 대처하라.

원숭이 44년생 술자리서 서의 조심할 것. 56년생 서두르면 후회할 일 만든다. 68년생 잠이 빠져 결과가 조리해 허탈하구나. 80년생 승진 준비한 몸이 구름을 만난 격이다.

닭 45년생 작은 것이 다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57년생 보증이나 돈거래는 거절할 것. 69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 81년생 옛말 틀린 것 없으니 귀담아 들어라.

개 46년생 찬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 58년생 식당경영자는 매출이 껑충 뛴다. 70년생 자신이 있을수록 더욱 신중할 것. 82년생 쇼핑가면 마음에 드는 물건 본다.

돼지 47년생 환자는 병세 호전된다. 59년생 이익이 많은 일일수록 결과은 소홀할 것. 71년생 친구 때문에 마음도 몸도 바쁘다. 83년생 붉은 색이 길하니 참고하라.

라이나생명
암보험 없는 61~80세를 위한
100세 보장
암보험!